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9 호

5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3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9 호 (223)
1963년 5월 (상)

차 례

공산주의 도덕 교양 ··· (2)

청소년들 속에서의 도덕 교양 ·····························김 송기 (8)

문풍 개선을 위하여 ··································최 완호 (14)

전 인민을 무장시킬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방침과 동만 유격 근거지에서의 그의 구현······박 득렬 (20)

생활 반영에서의 진실성을 위한 작가의 노력······김 하명 (26)

현 시기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의 심각화·········김 성제 (32)

—문 답 학 습—

보세 가공 무역이란 무엇인가·······························서 성준 (40)

공장, 기업소에서의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김 을갑 (45)

공산주의 도덕 교양

1

최근 우리 당은 계급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와 더불어 도덕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계급 교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도덕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계급 교양은 낡은 사회, 낡은 계급의 사상 의식 뿐만 아니라 온갖 낡은 생활 인습, 심리, 륜리, 도덕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상—로동 계급의 사상과 세계관을 주입하며 로동 계급의 생활 질서, 륜리를 주입하는 심각한 사상 투쟁 과정이다.

계급 교양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도덕 교양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중요하게 제기한다.

적대적 계급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도덕은 계급적 성격을 띠며 계급 투쟁의 리익에 복무한다.

《우리는 우리의 륜리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의 리익에 전적으로 종속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바이다. 우리의 륜리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의 리익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다.》라고 레닌은 지적하였다. (전집 제 31 권, 348 페지)

도덕 교양은 계급 교양을 보충하며 계급 교양은 도덕 교양을 안받침함으로써만 진정으로 생활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도덕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계급 교양을 잘 하도록 해야 하며 계급 투쟁, 혁명 투쟁의 리익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계급성, 당성의 원칙을 떠나서 도덕 교양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도덕은 계급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계승성을 가진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 속에서는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이 날로 확대되여 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빈 터전 우에서 하루 아침에 생겨난 도덕이 아니다. 근로하는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창조된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도덕의 요소들이 계승되고 발전된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동방 례의지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 인민은 례절이 밝았고 의리를 지킬 줄 알았으며 단결력과 애국주의 정신이 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현대의 가장 선진적 계급인 로동 계급의 발생과 더불어 이러한 미풍량속은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계승되였다. 1930 년대에 이르러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이 맑스-레닌주의와 정확히 결합되면서 그것은 공산주의적 도덕 발전의 중요한 바탕으로 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1930 년대 항일 빨찌산 투쟁 과정에서는 혁명적 동지애, 집단주의, 공산주의적 의리와 같은 공산주의 도덕의 전통이 확립되였다.

이 전통은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되였으며 인민들 속에서 새로운 도덕적 관계의 형성 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원천으로 되였다.

생산 관계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고 사람들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완전히 없어지자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새로운 인간 관계에 들어 섰다. 당은 혁명 전통과 결합된 전면적인 공산주의 교양을 진행함으로써 이에 의식성을 부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들이 속출하게 되였다. 우리는 천리마 기수들 속에서 바로 그러한 인간들의 전형을 찾아 본다.

천리마 기수들은 항일 빨찌산들이 이룩한 고귀한 공산주의적 도덕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도덕, 새로운 인간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의 생활 원칙의 기본은 집단주의이다.

김 일성 동지는 그들의 생활 원칙을 특징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천리마 작업반은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며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집단이다.》(《천리마 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이것은 우리 천리마 기수들 속에서 공산주의적 생활 원칙이 굳건히 자리잡았으며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바로 집단주의는 공산주의 도덕의 기본 특징을 이룬다.

집단주의는 개인 리기주의적 부르죠아 도덕과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부르죠아 도덕도 포함하여 종래의 모든 착취자 계급의 도덕은 그것이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은 것으로 하여 이렇게나 저렇게나 사'적 소유를 유지 공고화하는 데 복무하는 개인 리기주의 도덕으로서 특징 지어졌다.

그러나 공산주의 도덕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집단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 만큼 이것은 집단과 사회의 유지, 집단과 사회의 발전,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옹호하는 데 돌려진다.

공산주의 도덕의 기타의 원칙들—동지애와 인도주의, 공중 도덕,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국가 및 집단의 재산에 대한 애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등—은 모두 집단주의로부터 흘러 나오며 그의 이러저러한 발현 형식으로 된다.

공산주의 도덕은 천리마 운동을 통하여 우리 생활에서 꽃피고 있으며 사람들을 더욱더 화목한 가정으로 단합시키면서 우리 제도의 공고화에, 우리 혁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당은 오늘 도덕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혁명 발전의 현 단계에 적응하게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보다 성과적으로 개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도덕 교양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문제는 우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의 육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새로운 더욱 높은 단계, 결정적 단계에 들어 섰다.

우리 인민은 7 개년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게 된다.

당은 다가오는 공산주의 시대에 적응하게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의 육성을 중요한 혁명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

다.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의 육성에서 부르죠아 도덕의 온갖 유습을 청산하며 공산주의 도덕으로 사람들을 확고히 무장시키는 것은 필수적인 고리의 하나이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며, 상당한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으로 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고상한 도덕의 소유자로 만듦으로써만 공산주의자로서의 그들의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이며 공산주의 건설자로 될 청소년 학생들에게 도덕 교양을 강화하며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으로 육성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는 청소년들을 례절 있고 의모 단정할 뿐만 아니라 로동과 국가 재산을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며 겸손하고 용감한 도덕적 인간들로 키워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미래 사회를 건설하며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도덕 교양의 강화는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사람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며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더 좋고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며 국가의 재산을 아끼고 절약하여 더 많이 증산하려는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가진다면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 촉진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더우기나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보다 쓸모 있고 맵시 있고 편리한 제품과 시설물들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제품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고상한 도덕의 소유자로 되여야만 제품 생산의 매 공정에. 정성이 깃들 수 있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정신으로서 쓸모 있고 질적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일 수 있다.

여기에 바로 도덕적 자극이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담보가 있다.

도덕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요구는 특히 우리 사회의 정치-도덕적 통일을 강화할 데 대한 필요성과 관련된다.

당은 남북 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이 점차 결정적 국면에로 가까와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정치-도덕적 통일을 더욱 강화할 것을 긴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통일은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철통 같이 다져져 있다.

당적 사상 체계는 당원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 속에서 확고히 수립되여 있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당과 더불어 어디까지든지 운명을 같이 할 각오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당과 더불어 숨쉬며 행동하며 혁명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이들을 도덕적 측면에서 의리적으로 더욱더 밀접히 결합시키며, 당과 결합시키는 것은 중요한 혁명적 과업으로 된다.

이 과업을 옳게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일'군들과 당원들이 사업 작풍을 바로 잡아야 한다.

당은 일'군들이 군중 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 당성과 더불어 인간성, 문화

성을 높일 데 대하여 강조하여 왔다. 도덕 교양의 강화 문제는 일'군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인간성, 문화성을 더욱 높일 데 대한 문제이다.

공산주의 도덕은 사람들을 고상한 인도주의자로 교양하면서 모든 근로 인민들과 피착취 대중에 대해서는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으로, 압박 착취하는 인간들 즉 적대 계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증오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킨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도덕 교양은 한편으로 우리 제도 밑에서 사람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우호 협조의 관계에 의식성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확고한 것으로 만들며 다른 편으로는 자본주의 제도 밑에서 사람들 사이의 승냥이적 관계와 온갖 부정의, 부르죠아 도덕의 부패성과 모순성을 철저히 폭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착취 제도와 착취 계급에 대한 증오심을 높이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의 문화성은 더욱더 도덕적 요구로 되고 있다.

선진적 사회 제도와 발전된 과학, 기술, 문화를 가진 문명한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의 일체 행동은 문화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비문화적 행동에 대하여 참지 못 하며, 사회적인 여론을 환기시킨다. 특히 일'군들은 모든 면에서 높은 문화성을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새 시대에 적응한 생활 질서를 배워 주어야 한다.

만일 어떤 일'군이 도덕적 품성이 높지 못 하고 인간성, 문화성이 부족하다면 그 때에는 사람들이 비록 같은 사상으로 단결되여 있다 하더라도 서로 친밀하지 못 할 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일'군들이 도덕적 수양을 높여 군중을 더욱 따뜻하고 고상하게 대함으로써 군중과의 단결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일단 유사시에 있어서도 군중이 당과 투쟁 목적을 같이하는 데서 뿐만 아니라 그들 호상간의 의리, 우리 일'군들과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정치 도덕적 통일이 이러한 단계에 보다 확고히 올라 서야 우리는 남북 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성과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도덕 교양의 강화는 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개선함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사업 수준을 높이는 데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옳게 설정할 데 대한 문제는 절실한 요구의 하나이다.

당 일'군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 사업의 매 공정은 사람들과의 사업이며 행정 경제 일'군이라 하더라도 매 사업 공정에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사람과의 사업을 떠나서 자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원칙을 학습하며 그것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행동에서 구현하는 것은 일'군들의 사업 수준 제고에서 떼여 놓을 수 없는 측면이다.

일'군들의 사업에서 높은 도덕적 영향력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며 당 정책 관철에서 더욱더 열의와 창발성을 내게 한다. 천리마 기수들의 사업에서의 빛나는 성과들은 모두다 이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양풍을 철저히 반대해 나갈 수 있다.

양풍은 우리의 도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패덕이며 생활에서의 부르죠아적 타락과 부패성의 표현이다.

오늘 우리 조국 남반부에는 양풍 중에서도 가장 반동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이 들어 와서 사람들을 타락 마비시

키고 있다.

또한 수정주의자들이 혁명적 생활 기풍을 싫어하는 데로부터 양풍을 끌어들이며 사람들의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양풍에 물젖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급적 처지를 잊어 버리게 되며 투쟁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사치와 향락만을 요구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수정주의자들이 도처에 양풍을 퍼뜨리려고 날뛰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경험은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그 어떤 《공허》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곧. 부르죠아 도덕이 들어 가고 양풍이 들어 간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도덕 교양을 잘 함으로써만 건전한 생활과 미의 견지에서 양풍을 똑똑히 갈라 내고 그것을 제때에 대중적 투쟁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혁명가답게 검박하고 전투적으로 생활함으로써만 당이 우리 앞에 맡겨 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오늘 도덕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는 전 당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긴요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 생활의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심중하게 제기되고 있다.

3

도덕 교양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무적, 방법적 문제들이 제기된다.

여기에서 우선 기본적 문제로 되는 것은 천리마 기수들의 생활 풍모를 규범화해 주며 일반화해 주는 것이다.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사는 천리마 기수들의 행동은 우리 도덕의 산 구감이다.

당은 천리마 기수들의 행동 규범을 일반화할 데 대하여 항상 강조하여 왔다.

모든 사람들이 천리마 기수들처럼 동지를 사랑하고 로동을 사랑하고 거대와 공장과 나라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 도덕은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도덕 교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천리마 기수들의 생활 규범 뿐만 아니라 항일 빨찌산들이 이룩해 놓은 공산주의 도덕의 전통과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모든 고상한 도덕의 전통을 옳게 계승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의다.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량속을 옳게 계승함으로써만 우리는 사람들을 민족적 긍지와 영예감으로 무장시키면서 도덕 교양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당은 천리마 기수들의 생활 규범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의 전통과 공산주의 도덕의 원리들을 배합하면서 학교 교재도 만들고 책도 많이 쓰고 문학 예술 작품도 많이 만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책을 쓰는 데서나 문학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서 류의해야 할 것은 도덕 교양이 특히 청소년들 속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니 만큼 그들의 일정한 년령층에 따라 교양 내용도 그에 알맞도록 설정해 주는 것이다.

아동들, 소년들, 청년들의 생활 세계는 동일하지 않다. 아직 어린 시절에 있어서는 생활 세계가 협소하며 따라서 그들은 보다 넓은 생활 세계를 잘 볼 수 없다. 또 녀자와 남자들은 같은 년령에서도 차이점을 가진다. 따라서 도덕 교양도 이에 적응하게 되여야 한다.

아이들에게 단번에 완성된 공산주의 도덕의 소유자로 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정한 년령층에 따라 도덕 교양의 내용들이 체계 있게 점차 발전적으로 선정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일정한 년령 세대의 생활 세계를 규정하고 그에 해당한 도덕적 내용들을 기계적으로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청소년들이란 부단한 육체적 발육, 정신적 발전의 과정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이며 더우기나 우리는 그들을 미래 공산주의 사회의 역군으로 키워 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년령별 대상 세계의 도덕 교양의 내용은 그의 다음 단계의 도덕적 내용을 전제로 해야 하며 도덕적 시야를 좁은 데로부터 넓은 데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선정되여야 한다.

다음으로 도덕 교양의 강화에서 중요한 문제는 민청과 소년단들에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민청과 소년단 단체들에서는 도덕 교양의 강화에 일차적 주목을 돌려야 하며 사회적인 제반 생활 조직을 통하여 청소년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도덕적 품성의 형성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민청과 소년단 단체들이 도덕 교양을 로동 과정과 옳게 결합하는 문제이다. 생산 로동과 떨어져서는 도덕 교양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우선 로동 과정에서 로동의 미를 깨닫게 하며 로동을 사랑하도록 교양해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고상한 사회주의적 품성을 가진 새형의 청년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로동을 즐기며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맡은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새로운 도덕을 소유하여야 한다. 로동은 사람을 단련시키며, 그에게 고귀한 품성을 배양하여 주며 그의 의식을 개조한다.》(선집 제 5 권, 428~429 페지)

로동은 바로 사회 생활의 기초에 놓여 있으며 동시에 사회 생활의 기본 분야를 이루고 있는 만큼 도덕 교양을 우선 로동과 결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후대들을 교양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사회 국가 재산과 동지와 전체 근로자들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성과 있게 교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덕 교양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은 또한 천리마 기수들 속에서 꽃피고 있는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적극 계발하고 발전시켜 주면서 그것을 전 사회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도덕의 전면적인 개화를 보장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통일과 혁명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청소년들 속에서의 도덕 교양

김 종 기

현 시기 우리 당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함에 있어서 계급 교양과 함께 도덕 교양을 강화할 것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새 세대들은 우리 혁명의 계승자이며 래일의 공산주의 건설자들이다. 이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옳게 교양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당이 교육 일'군들 앞에 제기한 중요한 임무는 우리의 젊은 후대들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믿음직한 건설자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교양 육성하는 것이다》(《청소년들의 교양에서 교육 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1 페지)

공산주의적 인간—이는 로동 계급의 계급적 세계관과 더불어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과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다.

공산주의 도덕 교양은 공산주의자의 이러한 계급적 세계관과 품성 형성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공산주의 도덕 교양은 우선 청소년들의 계급적 세계관을 확고히 수립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공산주의자에게 있어서 계급적 립장과 지조는 혁명 투쟁의 기본 요구이다. 이러한 계급적 립장은 계급 의식의 제고와 함께 부르죠아적 인습과 부르죠아 도덕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덕 륜리로 교양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즉 계급적 세계관의 확립은 다만 사상 리론적 교양만으로는 부족하며 생활적 체험을 통한 도덕 륜리적 교양과 결합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사람들이 공산주의 도덕 륜리로 교양될 때 계급 투사로서의 품성은 어떠해야 하며, 공산주의자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선과 악이며, 정의와 부정의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된다. 또 이렇게 될 때 부르죠아적 인습, 부르죠아 륜리와 성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고 그들 자신의 머리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에서 그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계급의 투사로서, 사회주의 인도주의자로서 벗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계급적 원쑤를 철저히 증오하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급적 세계관을 확립함에 있어서 계급 교양을 도덕 교양과 정확히 결합시켜야 한다. 만일 이를 분리시켜 계급 교양 일면에만 치중한다면 당성과 더불어 문화성, 인간성이 풍부한 인간을 육성할 수 없으며, 또 도덕 교양 일면에만 치중하면 《인정 세태》에 빠진 무익한 인간을 육성하게 될 것이다.

특히 현 시기 청소년들의 계급적 세계관 확립에서 공산주의 도덕 교양의 역할은 매우 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계급적 세계관은 적과의 직접적인 투쟁 속에서 성과적으로 배양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새 세대들은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의 착취를 체험하지 못했으며, 선렬들이 피흘려 쟁취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평화로운 환경에서 단련과 시련을 겪지 못하고 자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소년들 속에서 계급 교양 문제가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는바 이 사업은 반드시 도덕 륜리적 교양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원쑤에 대한 사상, 도덕적인 불타는 적개심을 더욱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공산주의 도덕 교양은 또한 청소년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육성함에 있어서도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새 세대들은 공산주의 건설자인 동시에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활하게 될 주인들이다.

공산주의는 인류 사회에서 가장 발전된 문명한 사회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와 인간, 인간 호상간의 관계는 사람들의 도덕적 량심, 자각, 륜리에 의하여 유지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의 건설자로서의 청소년들을 응당 그 사회에 상응한 정신 도덕적 풍모를 소유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높은 품성과 인격의 형성은 오로지 공산주의 도덕을 통하여서만 형성된다.

청소년들 속에서 공산주의 도덕 교양의 강화는 현대 수정주의의 매개자인 양풍을 반대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시기는 감수력이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기인가 하면 또 생활 체험이 적고 사고력이 전면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조건에서 옳고 그른 것을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약점도 있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색다른 것이 나타나기만 하면 용이하게 감수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옳은 생활 관점이 없을 때 양풍이 나타나면 그 본질을 모르고 빠져 들어 갈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양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양풍의 부르죠아적 본성을 폭로하고 이와 함께 그들을 공산주의 도덕으로 교양하여 정신 풍모를 더한층 높여야 한다.

* *

현 시기 청소년들을 위한 공산주의 도덕 교양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

청소년들을 우선 애국주의로 교양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도덕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사회주의 애국주의다. 애국주의는 자기 조국의 참된 공민으로 되려는 고상한 도덕적 감정이다.

공산주의자는 무엇보다도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사랑하며 자기 고향의 일목 일초를 아끼며 사랑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숭고한 품성이다.

우리의 항일 선렬들은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였으며,

우선 우리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우리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피흘렸다. 이러한 애국자만이 또 진정한 국제주의자로도 된다.

우리의 청소년들을 바로 이러한 애국자로 육성해야 한다.

만일 청소년들을 애국주의로 교양하지 않는다면 부지부식간에 자기를 낳아 길러 준 어머니 조국을 잊어 버리고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젊은이 한테서는 공산주의 혁명가로서 자기 힘에 의해서 자기 조국을 지상 락원으로 꾸리려는 숭고한 자력 갱생의 정신이 발현될 수 없다.

오늘 각급 학교들에서는 혁명 전통 교양과 함께 애국 전통 교양이 강화되고 있으며, 자기 마을, 자기 학교를 사랑하고 아담하게 꾸리는 애국주의적 풍모 교양이 강화되고 있다.

약수 중학교, 부타 중학교들을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무릉 도원》 못지 않게 아담하게 꾸려졌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 속에서는 애국주의 정신 풍모가 더욱 형성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애국주의 도덕 감정이 깊이 체현되였을 때 당과 조국의 부름이라면 그 어떤 곳이라도 서슴 없이 자기를 바칠 수 있다.

우리가 다 아는 리 수복 영웅은 바로 학창 시절에 항일 선렬들의 애국주의적 전통을 본받아 자기 마을, 자기 학교,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적 감정이 형성되여 있었음으로 하여 조국 해방 전쟁에서 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도 서슴 없이 바쳐 적 화구를 가슴으로 막는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다음으로 현 시기 청소년들을 위한 공산주의 도덕 교양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그들을 집단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문제이다.

집단주의는 공산주의 도덕의 기초이다. 공산주의자는 집단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집단주의 정신이 있을 때만이 사회와 혁명을 위하여 자기 개인을 바치는 계급적 투사로서의 자각이 나올 수 있다. 또 집단주의로 무장될 때만이 집단과 조직을 존중히 하고 거기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생활하려는 기풍이 확립된다.

집단주의와 대치되는 것은 개인주의다. 물론 우리의 청소년들은 착취 사회를 모르고 성장하였으므로 《매 개인은 자기만을 위하여, 하느님만이 전체를 위하여》라는 부르조아 도덕 륜리에 직접 물들지 않았다. 그러나 낡은 사회에서 살아 온 부모들과 선배들의 이러저러한 영향과 자신들의 수양 부족으로 하여 개인 영웅주의, 공명주의, 허풍, 야첨 등 낡은 잔재들이 발로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 리기주의는 공산주의자의 도덕 품성과는 인연이 없으며, 또 이것은 혁명 발전에 손실을 주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고도로 조직화되며 규률성, 자각성이 요구되는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자로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들 속에서 집단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현 시기 청소년들 속에서는 우리 당이 제기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하에 집단주의 교양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들 속에서는 집단주의를 도덕적 의무로 여기는 품성이 공고화되여 가고 있다.

특히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집단주의 교양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는 천리마 학급 쟁취 운동과 모범 분단 쟁취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여 집단과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미풍들이 수 많이 발현되고 있다.

평양 사범 대학, 함흥 의과 대학 청년 학생들은 하나의 어린 생명을 위하여 살을 떼여 주고 있으며, 황해 남도 청단군 금학 농업 학교 영웅 백 충기 학생은 물에 빠진 어린 세 생명을 자기 희생적인 로력으로 구원함으로써 고매한 공산주의적 미풍을 발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집단과 인민을 위한 숭고한 정신을 청소년들 속에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가장 높은 영예로 알도록 교양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산주의 도덕 교양에서 현 시기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의 하나는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를 배양하는 문제이다.

공산주의자의 품성에서 중요한 것은 로동에 대한 태도이다. 로동은 인류 사회의 모든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원천이다.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로동을 가장 존중하며 영예로운 것으로 인정한다.

청소년들을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로 교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청소년들을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로 교양하지 않는다면은 로동에 대한 낡은 관점에 물젖어 자신의 로동에서나 또 남의 로동에 대해서나 존중하지 않고 국가 사회 재산을 애호하지 않을 수 있다.

로동에 대한 이러한 봉건적, 자본주의적 관점은 우리 사회 제도를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데 장애로 된다.

특히 로동은 청소년들을 혁명가로서의 실천 행정을 통한 단련에서 중요한 방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인간은 혁명 투쟁의 불'도가니에 뛰여들수록 더욱 세련되고 단련된다.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로 교양함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 생산 로동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바로 감수기이며 활동기이며 성장기인 청소년 시절에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 근면성과 성실성으로 교양하는 것은 장래의 로력적 예군으로 되게 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공산주의 도덕 교양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을 조선 인민의 예로부터 내려 오는 의리와 례의 범절, 미풍 량속으로 옳게 교양하는 문제이다.

조선은 예로부터 동방 례의지국으로서 의리 있고 례의 범절이 밝은 미풍 량속의 나라로 이름 있다.

이러한 긍정적 전통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참된 공산주의자다운 풍모와 인격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검박하고도 소박한 품행으로, 례의 밝고 의모 단정한 품성으로 교양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상의 몇 가지 측면에서만 보아도 공산주의 도덕 교양은 청소년들의 품성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　　*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교양할 수 있는 온갖 수단—학교, 출판물, 예술, 문화 계몽 기관의 역할을 일층 높여야 한다.

우선 학교 교육에서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학교 생활—이것은 사회 생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그들을 어떻게 교양하고 단련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도래하는 앞으로의 생활을 보다 준비 있게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데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새 세대들을 지식 있고 정치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고상한 품성을 가진 일'군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그들을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교육 교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은 오늘 보통 교육 부문 각급 학교들에서 《공산주의 도덕》을 주요한 학과목으로서 설정하고 교종과 학년에 따라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고 교수 교양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년령, 사고 발전 정도에 적응하게 교수 요강 내용을 옳게 설정하는 것이다.

교수 요강 작성에 있어서 어린 시절이라 하여 주로 몸차림, 례의 범절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도덕의 전반적 내용을 포괄하고 그것을 청소년들의 구체적 대상에 상응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생활 자체의 요구이다. 아무리 어린 시절이라 하여도 그들의 생활은 몸차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어린이로서의 사회와 인간들 간의 호상 관계가 설정된다. 그렇다고 하여 년령, 심리적 특성에 맞는 집중적 도덕 교양을 도외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의 생리적 발육, 심리적 변화, 사고 발전 정도에 맞는 도덕 교양을 집중하는 것을 결합해야 한다. 례하면 15~20 세 전 시기는 생리적 발육 시기이며 활동적 시기이므로 용감성, 투쟁력 등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이 량 측면을 옳게 결합시켜 교육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년령, 사고 정도에 맞게 생활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학년이 높아감에 따라 폭을 넓히며, 리론적으로 도덕 륜리를 체득시켜야 한다.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후대 교양의 직접적 담당자인 교원들 자신이 시범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백 마디 말로써 도덕적 설교를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시범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교원은 언제나 청소년 학생들의 생활과 행동의 거울이 되여야 한다.

교원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워 주려고 하더라도 교양자 자신의 언행이 일치되지 못 할 때에는 피교양자들에게 결코 좋은 교양적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낡은 부르죠아 학교의 가장 큰 폐단의 하나는 학교와 생활과의 유리, 리론과 실천 간의 불일치에 있었다. 그러한 곳에서는 흔히 도덕을 훈교하는 교수자 자신이 실천할 수 없는 미사려구로써 학생들의 머리를 괴롭히군 하였다. 그런 까닭에 학생들은 선생의 말은 문'자 그대로 말로만 듣고 행동은 행동대로 다르게 하였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교원들 자신이 언제나 공산주의자로서 생활하고 행동하며 공산주의 도덕의 실천가로 될 때, 후대들은 그를 본받을 것이며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교원 자신의 항시적인 수양, 모든 사업을 창발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기풍, 성과에 도취하지 말고 계속 긴장된 태세에서 사업하는 것—이 모든 것이 결국 학생들의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이끌고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 생활에서 도덕의 의의가 중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학교 교육 사업에만 국한시킬 수 없다.

온갖 교양 수단인 소설, 영화, 교과서, 신문, 잡지 등 모든 수단들이 공산주의 도덕 교양의 강유력한 무기로 활용되여야 한다.

생활을 심각히 반영한 예술 작품이 청소년들의 정신 세계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는가!

《붉은 선동원》은 인간 개조의 산 교과서이며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웅변으로 보여 주는 공산주의 도덕의 교과서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을 계급적 세계관이 높고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이 높은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욱 훌륭히 복무할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문풍 개선을 위하여

최 완 호

지난해 5월 3일 교시에서 수상 동지께서는 출판물의 문풍을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셨다.

이 교시가 있은 후 우리 출판물들은 문풍을 바로잡는 면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말을 정확하게 하고 글을 아름답게 쓰며 인민들의 귀와 눈에 익은 표현들을 골라서 문장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의 정서 교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말과 훌륭한 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말과 글로써 많은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던 것이다.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 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룡의 초리 섯돌며 뿜난 소리 십리에 잦아시니 들을 제는 우뢰러니 보니난 눈이로다.》

이 글은 일찌기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조선의 참된 문장》이라고 김 만중이 절찬한 정 송강의 《관동 별곡》의 한 구절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조국 강산에 대한 필자의 알뜰한 사랑과 긍지 높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당시 량반 선비들이 즐기던 고루한 한문 문장의 틀을 벗어 던지고 파묻혔던 고유 조선어 어휘로써 아름다운 금강 풍경을 묘사한 생동한 화폭을 찾아 보게 된다.

모국어를 그토록 사랑하고 모국어에 대한 그렇게도 깊은 리해를 가지고 있었던 서포 김 만중이 송강의 가사를 한없이 기린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김 만중은 자기의 《서포 만필》에서 모국어에 대한 깊은 인식만이 훌륭한 문장을 쓸 수 있다는 정당한 견해와 인민의 언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립장을 보여 주는 고전적 교훈을 남겨 놓았다.

우리의 수 많은 탁월한 문인들은 이미 칠팔백 년 전에 훌륭한 사실주의 작품을 써 내였고 수백 년 전에 벌써 언어와 문장에 대한 이러한 선진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사상과 함께 외래 제국주의자들과 봉건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민족 자주의 사상을 부르짖고 나선 19 세기 말 20 세기 초의 《언문 일치》 운동도 민족어의 개화 발달, 문체의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일제 강점 시기에 민족어를 고수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바로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의 한 고리로 전개되였다.

특히 항일 유격대원들의 모국어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혁명에 대한 그들의 확고 부동한 사상,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굳게 련결되였었다.

이 시기의 인민적 문풍 확립을 위한 투쟁은 사회 발전과 투쟁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언어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항일 유격 투쟁 과정에서의 인민적 문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그 모범은 해방 후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계승되고 더욱 심화되여 인민적 문풍 확립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게 하였다. 그리 하여 부단히 개화 발전하고 있는 우리 말은 오늘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를 건설하는 데 성과적으로 복무하고 있다.

그러나 날에 날마다 발전하는 우리의 현실은 언어 생활과 인민적 문풍 확립을 위한 사업 앞에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것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모든 사업이 그러한 바와 같이 언어 문화를 높이는 문제에서도 간부들이 노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간부들은 당 정책을 군중 속에 침투시키기 위하여 글을 쓰며 직접 군중 앞에 출연한다.

대중들은 이러한 기회에 지도 일'군들의 글체나 말투, 지어는 발음과 억양에 이르기까지 본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속에서 사업하는 지도 일'군들의 언어 문화를 높이는 문제는 인민적 문풍 확립에서 선결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지도 일'군들은 토론이나 강연을 하면서 사투리를 함부로 쓰거나 세련되지 않은 말을 하며 문법에도 맞지 않고 문장도 바로 째이지 않은 보고문을 들고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크게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사소한 것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실례를 들어 보자.

《다음은 위원장 동지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일 이런 어색한 번역투 대신에 《다음은 위원장 동지가(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라고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써 온 말씨로 고쳐 쓴다면 얼마나 귀'맛이 좋고 부드럽게 들리겠는가!

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면 될 것도 구태여 《가르쳐 주는 사업을 진행하였다》라는 식으로 불필요한 격식을 차려서 말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여야만 말에 어떤 무게가 있는듯이 생각하고 있다.

언어란 그 목적과 사명이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상대편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는 만큼 언제나 상대편의 의식 수준과 리해 능력을 먼저 고려하고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우리의 항일 유격대원들은 대상에 맞게 말을 하며, 호소성과 혁명성이 들끓는 한 장의 선전문을 만들기 위해서도 고치고 다듬기에 얼마나 많이 애썼던가!

고난의 행군 끝에도 가렬한 전투의 여가에도 김 일성 동지께서는 선전원들에게 친히 전투 소보의 글까지 써 주시면서 문장을 쉽게 쓰고 간결하게 만드는

모범을 보여 주셨다.

《…총을 쏠 때 과녁을 정확히 겨누어야 명중하듯이 글도 목표를 똑바로 정해 놓고 써야 한다. 그래야 사상적 무기로 될 수 있는 것이다.》(한 천추 동지의 회상기 《사령관 동지가 주신 연필》)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는 바로 우리의 언어가 항상 혁명 운동과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투쟁의 무기로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이 군중 속에 깊이 침투되자면 사상의 표현 수단인 언어가 진정으로 인민의 언어답게 되여야 하며 인민의 요구와 희망이 그 표현 형식에까지 원만히 반영되여야 한다. 이것은 연설문이나 보고서 기타 지상을 통한 긴 내용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간판, 상표, 상품의 설명서, 광고, 게시문 등에 이르기까지의 언어 사용의 모든 분야에서 관통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군들의 관심이 부족한 데로부터

《사용할 때마다 진탕 복용하여야 한다》, 《욕실 내에서의 방가 방성 엄금》 등 우리 말답지 않은 어색한 표현들이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있다.

만약 어떤 일'군이 아직껏 언어 문화를 높일 데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은 곧 자기의 모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을 사랑하는 일'군이 자기 언어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 우리 나라의 많은 애국자들은 자기 말과 글을 고수하기 위하여 애국적 열성을 다바쳐 싸웠다. 리조 봉건 시기의 고루한 사대주의자들을 반대하며 우리 말을 연구한 실학자 신 경준, 류 희 등이 그러했고 민족어의 자주성을 부르짖은 주 시경이며,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을 반대하여 옥사하면서까지 자기의 지조를 지킨 리 윤재 역시 그러했다.

조선어는 이러한 슬기로운 우리 인민들에 의하여 모진 수난을 이겨 냈고 빛나게 계승 발전되여 왔다.

이러한 말과 글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더욱 다듬고 세련시켜야 한다.

문풍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 이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다. 오직 모든 지도 일'군들이 우리 말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학습할 뿐만 아니라 우선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관점을 옳게 세우는 문제가 중요하다.

* *

인민적 문풍 확립에서 출판물들이 노는 역할은 중요하다.

우리의 출판물들은 《일반적 프로레타리아 사업의 일부분》이며, 《전체 로동 계급의 전체 의식적인 전위대에 의하여 운전되는 통일적인 위대한 사회 민주주의적 기계의 조그마한 차륜이나 나사못》(레닌, 《당 단체와 당 문학》)인 것이다.

특히 《… 조선의 싸움은 무장적 싸움이 아니고 선전적 말의 싸움과 글의 싸움》(김 일성 선집 제 1 권, 1954년 판, 121 페지)인 오늘날 우리의 당적 출판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음모 책동과 각종 부르죠아 사상 요소들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고 대중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위력한 수단으로 복무한다.

우리의 당적 출판물들이 이러한 사명을 다하려면 내용에 상응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도 그 언어적 표현 형식이 변변치 못할 때에는 독자 대중에게 전달되는 힘도 그 만큼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출판물의 언어적 표현 형식을 세련시키는 문제는 우리 출판물의 전투성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되여 있다.

동시에 수백만 독자들의 친근한 벗으로, 교양자로 되는 우리의 출판물에서 독자들은 그 사상적 내용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언어와 문체까지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신문, 잡지들에서 사용되는 말과 글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서사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신문, 잡지들의 언어, 문체를 개선하는 문제가 인민적 문풍 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선차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오늘 우리 출판물들은 어휘, 문법적 측면에서나 문체의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현저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5월 3일, 수상 동지의 교시가 있은 이후 우리 출판물들은 내용에서나 형식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달성한 성과에 자만할 수 있는 근거로는 되지 못 한다.

아직도 우리의 출판물들은 그 언어적 표현 형식에서 부족점이 적지 않으며 당적 요구의 수준에서 멀리 뒤떨어져 있다.

우선 문체의 개성적 특성이 뚜렷하지 못 하다.

《글은 곧 사람이다》라는 옛글이 있다. 이는 바로 문체의 개성적 특성을 강조하여 이른 말이다. 물론 출판물들에서의 문체의 다양성은 기사의 종류에 따라, 취재의 각도에 따라, 언어적 표현의 질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적지 않은 글은 이 문체도 저것과 한본이고, 저 필치도 이 글과 같은 투로 되여 글에 생신한 맛이 적고 단조롭다.

작가나 명인들의 탄생 기념 론설 같은 글은 필자도 신문도 다 다른 경우에까지 거의 비슷하게 되여 나간다.

이것은 필자 자신들이 자기의 말, 자기의 목소리를 들며 주려 하지 않고 기존 틀과 격식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 이야기도 들어 가야 한다》, 《이것을 빼 놓을 수야 없지 않는가》, 《인용문이 두어 개 정도는 있어'야 하지》하다 보니 결국 《규격품》이 《생산》될 수 밖에 없다.

옛문인들의 글은 그 문체만 보아도 《다산의 글이다》, 《연암의 글이다》 하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만큼 그 문체의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이 아닌가!

출판물들에서 글의 개성이 살지 못하는 다른 하나의 사정은 필자와 편집부와의 관계에도 있다.

우선 필자는 편집부의 《주문》을 받으면 자신이 확고한 견해를 세우고 글에 담아야 할 내용을 깊이 연구한 토대우에서 집필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 하여 비록 한 가지라도 자기가 찾아 낸 문제성을 제기하고 고심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적지 않은 필자들은 그렇지 못 하다. 이미 론의될 대로 된

문제들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된 글이 존중시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그리 하여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결국은 필자의 글도 아니고 편집자의 글도 아닌 판에 박은듯한 것이 생겨 나온다.

이상과 같은 문제와 함께 아직도 우리의 출판물에는 한'자 어휘의 람용, 조선말답지 못 한 번역투, 까다롭고 따분한 문장 등이 내용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 하여 우리의 일부 글 가운데는 아까운 시간을 랑비하면서 두세 번씩 곱씹어 읽어야 그 뜻을 겨우 리해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나는 맥각 주사약에 대한 처방전의 요구를 당장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조제사 김 두칠 동무가 30여 리나 상거해 있는 령대라는 곳으로 단숨에 달려 가 구해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북받치는 감격을 금할 수 없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우선 《맥각 주사약에 대한 처방전의 요구를 당장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라는 이야기가 《나》라는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일로 생각하고 내리 읽다가, 그것이 《나》가 아니라 조제사의 행동과 관련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 하여 자기의 첫 인식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사약에 대한 처방전의 요구》라는 표현 역시 글의 내용을 모호하고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도대체 처방전이 주사약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가 하면 우리말답지 않은 번역식 글투와 단어들이 문풍 개선을 저애하고 있다.

《심어지는 나무》, 《발전되여지는 농촌》, 《쏘아지는 포》, 《된다고 보아지다》 등 피동 형태를 함부로 람용하고 있다.

조선어 문장으로 구성되지 못 한 채 세상에 나타나는 글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가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실례를 들어 보자.

《탄광 광산에서 손상 시 로동자의 자체 또는 호상 방조에 대한 참고 자료》—이것은 한 선전용 소책자의 이름이다.

《…광산에서 손상 시…》란 과연 무슨 말인가? 《손상》이란 단어의 의미로 이 글의 뜻을 해석한다면 로동자들이 어떤 기대 설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개별적 혹은 여럿이 서로 방조하여 그것을 어떻게 수리하는가 하는 방법을 쓴 참고 서적이라고 리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책은 다름 아닌 보건 계통 기관에서 출판되였다. 생각컨대 《부상》이란 말을 《손상》으로 잘 못 쓴 것 같다. 어휘 하나를 잘못 썼기 때문에 책의 기본 내용까지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필자들은 자기 글이 독자들 속에서 얼마나 애독되여 호평과 찬사를 받는가에 대하여 응당 생각해야 할 것이다.

풍부한 어휘, 표현의 다양성은 결코 어떤 미사려구의 라렬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독자들은 부드럽고 귀'맛이 구수하며 간결하여 심장을 직통으로 울리는 그런 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문필가들이 이런 현실적 요구에 더 민감하게 수응하려면 표현 형식의 인민성을 보장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학 평론의 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원래 평론이란 《언어 명수》들인 작가들의 글을 상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평론가들의 글은 그것 자체가 《언어 명수》들의 언어를 더욱 세련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것으로 되여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아주 순탄하고 구수하게 쓴 훌륭한 평론들과 자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평론들에는 극히 단순한 사상인데도 까다롭고 복잡하게 표현하여 그런 글에 익숙하지 못 한 일반 독자들은 읽고도 리해할 수 없는 글들이 적지 않다.

우리의 평론들에서 우선 만나게 되는 것은 인민적인 바탕에 뿌리 박지 못한 글투이다.

최근 문학 신문에 실린 평론 《장편 소설의 형상성 제고를 위하여》에서 한 실례를 들어 보자.

《…여기에서 창작의 미학적 요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되여지는 문제는 사건을 통해서 성격이 재현되여지는 면만이 아니라 성격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여지는 새로운 면을 통일적으로 개척하는 문제이다.》 이 글을 어떤 독자가 선뜻 리해하지 못 한다고 하여 과연 독자의 수준이 낮다고 탓하겠는가?

최근 시기 일부 평론들에는 까다롭고도 어색한 표현, 졸렬한 반복과 문법적으로도 부정확한 문장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작품의 일부분으로 채택되여지고 있는 분해되여진 생활》이니, 《창작에 대한 의욕적 자세의 부족》이니, 《천명 부각을 위하여》, 《발견 천명되는》 등 리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단어 결합들과 표현들이 함부로 사용되고 있다.

자의 대로 어휘를 선택하며 필요 이상의 《유식》을 뽐내는 이런 현상들은 독자들을 존중히 하지 않는 태도이며, 글을 가지고 대중과 관계하는 사람으로서의 신중치 못 한 태도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오직 인민 대중을 위하여, 인민들에게 애독되는 글을 써야 한다는 책임감과 인식이 철저할 때만이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고전적 문필가들의 고귀한 실천적 교훈이 아닌가!

독자 대중을 생각하지 않고 쓴 글은 주소 없이 보낸 편지와 같아서 그 어떤 반응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필자들의 관점 문제와 함께 인제는 인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맞는 순탄하고 알기 쉬운 글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 *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이 위업 가운데는 언어의 문화성을 높이며 인민적 문풍을 확립하여야 할 과업도 중요하게 포함되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과업을 하루 바삐 훌륭히 수행하고 나아가서는 조국이 통일되는 날, 남반부에서 미제 양키 문화의 악독한 영향으로 어지러워진 우리 말과 글을 바로잡아 민족어가 지닌 온갖 좋은 점을 더욱 찬연히 빛내야 한다.

전 인민을 무장시킬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방침과 동만 유격 근거지에서의 그의 구현

박 득 렬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는 우리 혁명의 임무와 나라에 조성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강화하며 우리의 혁명 기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킬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당의 이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간부들과 당원들이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미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되고 구현된 전 인민적 무장 로선의 정당성과 특히는 한 손에 무기를, 다른 한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를 다년간에 걸쳐 수호한 항일 유격대원들과 근거지 인민들의 빛나는 투쟁 경험, 그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 인민이 무장할 데 대한 문제는 식민지 통치 제도와 부르죠아 착취 제도를 청산하며 전복된 착취 계급들의 반항과 제국주의자들의 부단한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공고화하며 그를 발전시키기 위한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서 흘러 나오는 요구이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전 인민적 무장 로선을 각종 기회주의자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 강령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서 고수하였다.

레닌은 전 인민이 무장할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무기를 가지며 그것을 다룰 줄 알며 군사 지식을 배울 것을 지향하지 않는 피착취 계급은 종복 계급으로 될 것입니다.》(레닌 전집 조선문판, 제 4 판, 제 35 권, 225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이 레닌의 천재적 예언의 정확성은 국제 혁명 운동의 실천적 경험과 함께 조선 인민의 피어린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력사가 명백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조선 인민의 애국적 반일 투쟁은 일제의 조선 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중단없이 계속되였으나 적들의 총검에 의하여

그 때마다 번번이 실패 당하는 쓰라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였다.

오직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상비적인 맑스-레닌주의적 무장 대오를 조직하고 인민들을 무장시키면서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을 항일 혁명 투쟁에로 적극 조직 동원함으로써 조선 인민은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최후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외래 제국주의·무력 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장구한 우리 나라 혁명 투쟁 행정에서 전 인민을 무장시킬 데 대한 전략전술적 방침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1930 년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시되였다.

전 인민을 무장시킬 데 대한 방침은 김 일성 동지의 무장 투쟁 로선과 군사사상의 중요한 구성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에서 상비적 무장 대오인 항일 유격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혁명적 인민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단일한 군사적 력량으로 조직함으로써 전 인민을 무장 투쟁에로 적극 동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애국적 인민들의 각종 형태의 투쟁을 무장 투쟁과 련결시키고 그 흐름 속에 전체 인민들을 결속시킴으로써 무장 투쟁을 전 인민적 규모에서 조직 전개하도록 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이 방침은 맑스-레닌주의 혁명 리론에 확고히 의거하여 항일 무장 투쟁의 임무와 성격 및 우리 나라 유격 전쟁의 구체적인 제 조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였다.

력사 발전의 기본 동력이며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창조자인 인민 대중은 특수한 사회 현상으로서의 무장 투쟁에 있어서도 그 진행의 전 과정과 결말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대중이 혁명 투쟁의 목적을 자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때, 대중이 무기에 숙달하고 군사 지식을 소유하며 무장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 잡았을 때 그 힘은 비할 바 없이 강력한 바 어떠한 제국주의 침략 세력도 이를 당하여 낼 수 없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는 전쟁과는 달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며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행한 항일 무장 투쟁의 전 인민적 성격은 로동 계급과 농민뿐만 아니라 광범한 각계 각층의 애국적 인민 대중을 혁명 투쟁에 적극 참가하게 하였다.

세계 유격 전쟁사 상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간고한 조건 하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담보는 오직 인민들에게 튼튼히 의거한 것이며 인민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무장 투쟁에로 적극 동원한 것이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전 인민을 무장시킬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방침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를 무장한 인민들의 철옹성 같은 요새로 전변시키고 적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 수 있었으며 15 여 성상에 걸치는 항일 무장 투쟁의 힘겨운 로정을 승리적으로 결속 지을 수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조선의 북부 국경인 두만강의 광활한 대안 지대에 창설된 동만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는 1932년 여름부터 1935년에 걸쳐 존재하였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서는 인민의 혁명 정권이 수립되였으며 낡은 통치 제도와 경제 관계들이 청산되고 토지 개혁을 비롯하여 남녀 평등권, 무료 의무 교육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적 개혁들이 실시되였다.

근거지 인민들은 일제와 그 주구들의 착취와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되였으며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제도를 직접 체험하게 되였다.

유격 근거지는 무장 투쟁 발전의 기지로, 전반적 반일 민족 해방 투쟁 발전의 책원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장차 전국적 판도에서 실현하여야 할 새 사회의 원형인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는 광범한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을 힘 있게 고무 추동하고 그들의 혁명화를 촉진시켰다.

공산주의자들은 유격 근거지를 거점으로 항일 무장 력량을 강화하고 축적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적 지반 우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일제에게 있어서 유격 근거지의 강화와 그에 의거한 무장 투쟁의 급속한 발전은 조선을 《공고한》 후방으로 만들고 침략 전쟁을 확대함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로, 커다란 정치적 위협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는 우리 나라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반동 공세의 총 호화를 조선 혁명의 중심인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 집중하고 대규모적인 《토벌》을 련속 감행하기에 광분하였다.

일제는 유격 근거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함에 있어서 제국주의 승냥이의 본색 그대로 악랄하고 잔인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썼다. 일제는 정예를 자랑하던 관동군과 조선 주둔 일본군을 비롯하여 위만군과 일만 무장 경찰대 등 방대한 무장 력량을 동원하여 유격 근거지를 포위하고 그를 완전히 소탕하려고 계속 집요하게 덤벼 들었다.

적들은 인민 대중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중적 학살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일방 야만적인 초토화 정책으로 유격 근거지 주변과 그 린근 촌락의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방화하고 파괴 략탈함으로써 근거지 인민들을 기아의 함정에 몰아 넣으려 획책하였다.

유격대와 인민들과의 련계를 단절하고 근거지를 봉쇄할 목적으로 적들은 근거지 주변에 높은 담'벽과 이중 삼중의 철조망으로 둘러 싸인 수 많은 집단 부락을 강제로 설치하였으며 인민들의 수족을 《보갑 제도》와 같은 각종의 악법으로 얽어 매려 하였다.

유격 근거지에 대한 집중적 공세는 군사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혁명 대렬을 내부로부터 분렬 파괴하려는 악랄한 내외 협공 정책으로 감행되였다.

유격 근거지에 닥쳐 온 이렇듯 엄혹한 시련의 고비는 한 달, 한 해도 아니고 그가 존재한 전 기간에 걸쳐 계속되였다. 유격 근거지가 처한 사정은 실로 간고하였다. 그러나 적들의 완전한 포위와 발광적인 공세도 손에 무기를 잡은 혁명 군중을 굴복시킬 수 없었으며 전 인민적 방위 체계에 의하여 철벽 같이 강화된 유격 근거지를 허물 수는 없었다.

확고한 승리의 신심과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충만된 항일 유격대와 근거지 인민들은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유격 근거지 방위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 같이 일떠 나섰으며 매번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적들의 완전한 포위 속에서, 그들의 대규모적 공세가 집중되는 간고한 환경에서도 모든 시련을 승리적으로 이겨내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은 것은 바로 근거지 내 전체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여 자체를 무장하고 유격 근거지를 철벽의 요새로 전변시켰기 때문이였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서는 전 인민을 무장시킬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방침과 탁월한 지도에 의하여 일제의 장기적인 대규모적 공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모든 혁명 군중이 군사적으로 준비되였으며 전 인민적 방위 체계가 수립되여 있었다.

유격 근거지 방위를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우리 나라 무장 투쟁의 핵심 력량인 항일 유격대의 전투력 제고에 커다란 힘을 돌리였으며 전체 인민들을 조직하여 그들을 군사적으로 준비시킴으로써 근거지 인민들을 단일한 군사적 력량으로 편성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항일 유격대는 정치 군사 훈련을 일상적으로 강화하고 적들과의 부단한 전투를 통하여 자체의 무장 장비와 대렬을 현저히 장성시켰으며 그의 전투력을 급속히 제고시키였다.

그리고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는 반일 자위대, 소년 선봉대 등 반(半) 군사적 조직들이 결성되였으며 이에는 혁명 군중들이 광범히 망라되여 있었다.

이 반 군사적 조직들은 항일 유격대의 보조적 무장 력량으로서 항일 유격대를 무장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항일 유격대의 후비 력량으로 육성되였다.

한편 근거지 인민들을 농민 협회, 반제 동맹, 부녀회, 아동단 등 혁명적 대중 단체들에 결속하고 그들을 적들의 침습에 조직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모든 인민들을 근거지 방위에로 조직 동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으며 근거지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일제와 그 주구들의 착취와 억압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한 근거지 인민들은 적들의 기만과 회유에 털끝 만한 환상도 가지지 않았으며 유격 근거지를 수호하며 조선 인민을 가난과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는 강도 일제와의 투쟁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되며 오직 원쑤를 반대하여 군사적으로 자체를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깊이 자각하였다.

유격 근거지 인민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적들의 침해로부터 유격 근거지를 보위할 데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호소를 받들고 청장년은 물론 소년과 녀성들, 로인까지도 모두 군사 지식을 소유하고 무기를 다룰 줄 알았으며 군사적으로 자체를 단련하였다.

유격 근거지가 처한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게 아동 학교, 성인 학교들에서의 수업은 군사 학습을 일반 교육, 생산 로동과 밀접히 결합하는 원칙에서 진행하였다.

근거지 인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적들의 불의의 습격에도 대처할 수 있게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하여 생산 활동에 참가하였다가도 일단 유사시에는 즉시에 원쑤를 맞받아 싸움터로 달려 나갔다.

유격대와 근거지 인민들은 적들에게

불의 습격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언제나 적들의 약점을 리용하면서 근거지 방위 전투의 전 행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 수 있었다.

유격대는 험준한 산악과 삼림으로 형성된 유격 근거지의 자연 지리적 조건에 의거하면서 집중과 분산, 유인과 기습, 전면 방어와 적 배후에 대한 타격 등을 능란하게 배합한 령활한 유격 전술로써 적을 압도하고 타승하였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 대한 적들의 대규모적 공세는 다년간에 걸쳐 간단 없이 계속되였으나 공산주의자들의 주위에 한사람 같이 뭉치였으며 전 인민이 무장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방침에 따라 군사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근거지 인민들을 당하여 낼 수는 없었다.

근거지 인민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항일 유격대와 생사 고락을 같이 하면서 희생적으로 투쟁하였다.

근거지 인민들은 난관이 거듭되면 될수록 더욱 원쑤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슴을 불태웠으며 불사조와도 같이 모든 시련을 이겨 가면서 고상한 혁명 정신을 남김 없이 발휘하였다.

항일 유격대와 근거지 인민들은 말할 수 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투쟁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남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외부에 기대를 걸고 투쟁의 발'길을 늦추며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나갔으며 자체의 힘으로 중첩되는 난관들을 극복 타개하였다.

항일 유격대원들과 혁명 군중은 인민들에 튼튼히 의거하고 있는 정의의 혁명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심으로 충만되여 있었다.

혁명의 승리를 확신한 유격 근거지 인민들의 생활은 혁명적 락관주의로 일관하였다.

그들은 난관으로 중첩된 간고한 환경에서도 우울, 권태, 실망을 몰랐으며 생활은 언제나 앞날을 지향하는 환희와 혁명적 랑만으로 가득찼다.

이와 같이 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근거지 인민들은 국가적 후방도 없고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고립 무원한 상태에서도 병력 상 장비 상 압도적으로 우세한 일제와 싸워 그들을 패배시켰으며 수년간에 걸쳐 유격 근거지를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전 인민이 무장하고 유격 근거지를 칠벽의 요새로 전변시킬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정확한 방침과 그의 철저한 관철은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유격 근거지를 수호하고 더욱 강화하였으며 나아가서 항일 무장 투쟁의 확대 발전과 조선 혁명 운동의 전반적 앙양을 이룩할 수 있게 하였다.

* *

오늘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은 전쟁과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전반적 정세는 우리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잔명을 부축하여 보려고 더욱더 발악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또 결코 변할 수도 없다.

우리들은 온갖 해이성과 권태증을 견결히 반대하고 항상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일거 일동을 경각성 있게 주시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에서 제시한 전투적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항일 유격대와 근거지 인민들이 유격 근거지를 고수한 빛나는 투쟁 경험과 그에서 발휘한 고귀한 혁명 정신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우리의 조국 강토를 난공 불락의 전투적 요새로 전변시켜야 한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방위를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혁명 력량은 얼마나 장성하였는가.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원쑤들의 침공이라도 물리치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130 여만의 당원을 망라한 필승 불패의 맑스-레닌주의 당, 통일되고 단결된 조선 로동당이 서 있으며 우리 당 주위에 붉은 일색으로 굳게 결속된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인민의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가 있으며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제 무력 침공자들을 타승한 인민 군대와 전 인민적 무장이 있으며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가 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 밑에 조국을 보위하며 혁명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비상한 결심과 혁명적 열정을 발휘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반드시 자기의 정의의 위업에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 것이다.

생활 반영에서의 진실성을 위한 작가의 노력

김 하 명

1

일정한 력사적 시대의 문학 현상들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개별적 작품들은 각각 고유한 사상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매개 작품들은 그 시대의 문학 전반에 구현되여 있는 일정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학도 이에서 례외로 될 수 없다. 장편 소설 《시련 속에서》와 《석개울의 새 봄》, 중편 소설 《전사들》, 단편 소설 《백일홍》, 희곡 《붉은 선동원》 기타 우리 시대의 생활을 제재로 한 성과작들을 두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주제가 각이하고 형식이 다르며 다양한 성격의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림 태운, 창혁, 박 대우, 현 우혁, 리 선자와 기타 긍정적 인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공통적인 성격적 특성을 쉽게 가려 낼 수 있다. 이들은 성격이 서로 다르고 각이한 환경에서 서로 같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동당 시대의 리상과 사상, 새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구현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 공통적인 성격적 특성을 시대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은 이미 모든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 나 나라의 주인이 되였으며 조국의 부강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속에서 단련된 새 형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가 나아갈 길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그 승리의 불가피성을 확신하고 개인의 운명을 사회의 운명에 의탁하고 있다. 여기로부터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성격적 특성이 흘러 나온다.

과거 계급 사회에서의 긍정적 인물들은 그 리상이 당대 사회와 충돌하였다면 오늘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의 리상은 우리 제도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바로 자기들의 사회주의적 리상이 착착 실현되고 있는 영광스러운 로동당 시대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그 실현을 위한 목적 의식적인 활동이 그들의 성격의 핵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성격의 특성은 우리 사회의 그 어데서나 볼 수 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인민군 용사들과 학생들, 과학 문화와 보건, 상업 기타 각이한 부문

에서 활동하는 일'군들의 창조적 로동과 가정 생활에 이르기까지의 크고 작은 사건들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 문학의 제재의 풍부성과 다양성이 규정되며 그 주제 령역을 더욱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작가들의 과업은 생활에서 일어 나고 있는 위대한 변혁과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새로운 성격적 특성을 높은 예술적 형상으로 재현하는 데 있다.

형상성,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력사적인 구체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형상성을 높이는 문제는 단순히 묘사의 구체화로써나 선행 문학의 성과를 모방하는 것으로써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우리 시대의 생활과 사람들을 잘 알며 근로자들의 미학적 욕구를 정확히 리해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전형적 환경에서 전형적 성격을 진실하게 재현하는 새로운 예술적 발견이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우리 문학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정 및 애정 륜리 문제에 대하여 약간 고찰하여 보자.

력사 발전의 일정한 시대에 가정 및 애정 륜리적 문제가 문학의 주요한 주제로 되여 있었다. 《춘향전》, 《로미오와 쥴리엣》, 《홍루몽》, 《예브게니 오네긴》 기타 수 많은 작품들이 가정 및 애정 륜리의 주제를 가지고 자기 시대의 사회 생활의 본질과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재현하였으며 이로써 시대의 새로운 지향을 반영하였고 시대의 과업에 해답을 주었다. 이것은 이 작품들이 창작된 소여 시기에 있어서 사회 제도의 모순이 가정 및 애정 륜리 문제에서도 집중적으로 표현되였고 이 문제가 그 만큼 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생활과 륜리는 질적으로 변하였다.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인 사회주의 건설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정이나 사랑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개인의 행복에 대한 문제가 도외시될 수 없으나 이 문제가 사회 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그 해결 방도는 계급 사회에서의 그것과 판이한 차이를 가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가들은 생활적 요구에 토대하여 이 문제를 선행한 문학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기하고 해답을 주는 것이다. 《백일홍》을 비롯한 현대적 주제의 우리 문학의 성과작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와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의 로동 계급과 농민들과 근로 인테리들의 사회주의 건설 투쟁을 반영한 《시련 속에서》나 《석개울의 새 봄》에서도, 원쑤들과의 가렬처절한 판가리 싸움의 정황 속에서 우리 인민군 전사들의 대중적 영웅주의를 생동한 화폭으로 재현하고 있는 《전사들》에서도 가정 및 애정 륜리적 문제들이 제시되고 등장 인물들의 행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묘사되여 있다. 작품들은 이로써 주인공들의 생활과 성격을 더욱 다면적으로 심도 있게 보여 주고 개성화할 수 있었으며 그 미학 정서적 기능을 훨씬 강화하였다. 그런데 이 작품들에서 그 문제들이 어떠한 립장에서 어떻게 제기되여 어떻게 해답을 주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작품들에서 가정 및 애정 륜리적 문제는 각

각 자기의 사상 주제적 과업과 인물들의 성격 발전의 론리에 따라 각이한 정황에서 각이하게 제기되고 서로 다르게 해결되고 있으나 그것은 모두다 사회적 복무와의 통일 속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긍정적 주인공들은 가정이나 사랑의 문제가 혁명 위업에 배치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이 본신 임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주요한 것—그것은 이 땅 우에 공산주의 리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립장과 견해는 그들이 가정이나 애정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이 문제들을 가장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사는 사회를 보다 훌륭하게 하며 하루 바삐 이 땅 우에 공산주의 리상을 실현함으로써만 가정 및 애정 륜리 문제를 비롯한 행복에 대한 인간의 모든 념원이 가장 공정하고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자각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새로운 륜리관이다.

박 대우와 구 혜경, 한 성호와 정숙, 창혁과 룡이, 림 태운과 선주, 현 우혁과 금녀와의 관계가 모두 이러한 사상적 바탕 우에서 설정되였으며 해결되였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작가들은 마치 천지 개벽과도 같이 모든 낡은 것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지상 락원을 건설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진실과 창조적 로동의 사회적 의의를 옳게 반영할 수 있었으며 우리 시대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진실하게 보여 줄 수 있었다.

이와 반면에 장편 소설 《전야에 봄이 온다》가 독자들의 불만을 환기시킨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작가가 오늘 우리 시대의 륜리의 본질, 우리 시대 녀성들의 행복에 대한 표상을 잘못 리해하였으며 따라서 우리 시대의 생활과 녀성들의 성격을 외곡한 때문이였다.

그러므로 문학이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제 령역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그 어떤 주제의 작품에서나 반드시 창조적 로동으로 들끓고 있으며 세기적 변혁을 이룩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진실, 우리 인민들의 사회주의적 리상과 새로운 륜리를 옳게 반영하지 않고서는 높은 사상 예술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2

시대를 진실하게 반영하는 데서 성격 창조와 환경 묘사와의 호상 관계를 옳게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우리 문학은 지난 기간 천리마 기수들의 생동한 성격을 창조하는 데서 적지 않은 성과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작품들에서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성격이 무개성적이고 단순한 《사상의 해설자》로 등장하고 있다. 독자들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응당하며 또 평론들에서 그 원인이 적지 않은 경우에 인물들을 생산 공정을 도해하는 수단으로 만들거나 그 성격을 복잡한 사건 속에 묻어 버리는 데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필요한 일이였다.

그런데 우리들은 서사적 문학 작품에서 성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디까지나 성격 창조를 사건 묘사와의 통일 속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성격을 사건 속에 묻어 버리지 말데 대한 요구를 생산적 환경에 대한 묘사를 기피하는 것으로써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서사적 문학에서 성격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사건의 의의를 경시하는 것은 결국 문학의 제재의 의의를 약화시키며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해야 할 문학의 기본적이고 가장 주요한 기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문학 작품에서 환경이나 사건 묘사가 경시되거나 그것이 비본질적일 때 아무러한 생동한 성격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은 더 론의할 필요도 없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오늘의 력사적인 사변들을 소재로 취할 필요는 무엇이며 전형적 환경에 대한 문제가 그토록 중요시되여야 하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이겠는가.

말할 것도 없이 생동한 성격, 시대의 본질을 반영한 전형적 성격은 전형적 환경 밖에서 창조될 수 없다. 우리는 성격과 사건을 대치시키지 말아야 하며 성격의 《부각》을 위하여 사건 발전의 론리가 무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

성격과 사건과의 호상 관계를 통일적인 견지에서 고찰한 모범을 우리는 맑스주의 창시자들의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맑스와 엥겔스가 랏살의 희곡 《프란츠 폰 직킹겐》과 허크네스의 단편 소설 《도시의 처녀》를 평하면서 바로 전형적 환경 묘사에서의 부족점이 전형적 성격 창조에 미친 영향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맑스는 《프란츠 폰 직킹겐》의 《구상과 장면의 생동성을 찬양해》마지 않았으나 희곡에서 《전체 관심이 귀족적 혁명 대표자들에게 집중되여》 있는 것을 결함으로 지적하면서 《농민들의 대표자들과 도시의 혁명적 요소들의 대표자들이 극히 중대한 적극적 배경으로 되여야 했을 것》이며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자기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바로 가장 현대적인 사상을 극히 소박하게 표시할 수 있었을 것》이며, 《좋든 싫든 군은 보다 더 쉑스피어적으로 되였을 것》(맑스, 엥겔스 《예술론》 89~90 페지)이라고 강조하였다. 엥겔스도 허크네스의 《도시의 처녀》에 대하여 《당신이 그리고 있는 성격들은 당신이 취급하고 계시는 그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전형적》이지만 《그들을 둘러 싸고 있고 그들이 행동하여야 하는 그 환경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로동 계급의 혁명적 반항, 자기의 인간적 권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열광적인 시도—반 의식적이거나 혹은 의식적이거나—는 력사의 일부분이며 사실주의의 령역에서도 응당 취급되여야》한다(우와 같은 책, 351 페지)고 강조하였다.

오늘 우리 시대의 생활과 미학은 창조적 로동으로 들끓는 거창한 생활의 흐름 속에서 급속히 장성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보여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문학의 우수한 작품들도 거의 례외 없이 우리 시대의 영웅인 천리마 기수들의 업적과 위훈에서 직접 제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림 태운, 창혁, 리 선자 등은 바로 창조적 로동의 한가운데서 묘사되였고

일정한 사건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성격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생활을 혁명적 발전에서 력사적 구체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반영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 있어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새로운 성격적 특성을 천명하기 위하여 자기 주인공을 보다 많이 생산적 환경에서 묘사하게 되는 것은 합법칙적 요구이다.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창조적 로동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의 생산적 배경의 묘사에 대해서는 더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그러므로 일부 작품들에 남아 있는 기록주의, 류사성의 원인이 생산적 배경을 묘사했다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술적으로 묘사하지 못한 데, 그것의 묘사에 적응한 예술적 형식을 탐구하지 못한 데 있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작품에서나 반드시 생산적 배경이 묘사되여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작품이 해결하려는 사상 주제적 과업을 무시하고 창조적 로동의 묘사만이 《전형적 환경》으로 된다고 주장하거나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로동당의 위대한 사상, 우리 당 정책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은 우리 사회의 그 어데서나 발현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들의 활동 분야가 전례 없이 광범하고 그 사회 및 정신 생활이 그지없이 풍부한 그 만큼 우리 사회 생활의 각이한 령역이 작품의 환경으로 묘사될 수 있으며 또 되여야 한다. 문제는 시대가 문학 앞에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사상 미학적 요구를 정확하게 리해하며 이에 옳은 예술적 해답을 주는 데 있다.

3

훌륭한 작품이 작가의 진지한 탐구와 창조의 결실이라면 문학 작품에서의 류사성은 작가의 태만의 결과이다.

어떤 작품을 놓고 볼 때에 사상 예술적으로 별로 나무랄 것이 없으며 훌륭하기까지 하더라도 그것이 선행한 작품의 모방일 때에, 그 주제와 형상 구성의 방법에서 류사성이 있을 때에 예술로서 높이 평가될 수 없다. 《옥루몽》은 《구운몽》보다 구상이 더 웅대하며 또 부분적으로 발전시킨 점은 있으나 그것은 《구운몽》의 주제와 형상 체계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문학사적 의의에 있어서 《구운몽》을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최근 시기에 일종의 류행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는 장편 소설의 3 부작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1 부의 주제를 더 심화시키지 못하고 성격의 발전을 보여 주지 못하며 예술적 형식에서의 새로운 개척이 없이 다만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만이 연장된 그러한 2 부나 3 부는 1 부가 달성한 예술적 성과에까지 손상을 주고 있다. 3 부작—그것은 작품의 사상 주제적 과업에 의하여 규정되여야 하며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여야 하며 반드시 새로운 예술적 발견이 첨가되여야 한다. 우리 생활의 내용이 다양하고 개성적이며, 그것이 부단히 발전하는 그 만큼 그것을 담는 예술적 형식도 부단히 발전해야 하며 새로운 표현 수단과 수법으로써 보충되여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극 문학이 최근 년간에 거둔 성과는 아주 교훈적이다.

《붉은 선동원》이 거둔 성과는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고 있는 사회주의 농촌의 건설자들인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를 통하여 긍정적 모범으로 부정을 감화하며 공화국 북반부를 붉은 일색으로 꾸릴 데 대한 우리 당의 위대한 사상을 천명하였다는 데만 있지 않다. 그것은 또한 그 사상 주제적 과업에 적응한 독창적인 형상화의 수법을 탐구해 냈다는 점에서 더욱 빛나고 있다. 희곡에서는 마을의 붉은 선동원인 리 선자를 일방으로 하고 뒤떨어진 리 복선, 최 판필과 최 진오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기본 갈등을 이루며 이 세 사람과의 모순에 기초한 세 가닥의 갈등선이 이에 얽히여 있다. 이 갈등은 사건이 진전함에 따라 처음에는 복선이가 개조되여 긍정의 편에 서고, 다음에 판필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협조 밑에 진오가 개조됨으로써 그 가닥들이 차례로 풀리여 해결에 이르고 있다. 바로 이러한 갈등의 설정과 해결에 의하여 마치 위력한 대하의 흐름과도 같이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간 개조의 군중적 성격과 김 일성 동지의 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있다. 실제로 작품의 성과는 작가의 이러한 구상이 생활적 진실을 예술적 진실에로 전화시킴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붉은 선동원》의 갈등 설정과 해결의 방도는 완전히 독창적이고 작가의 새로운 예술적 발견이며 그 만큼 우리 극 문학의 보물고에 기여한 공로도 크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긍정적 모범에 의한 교양 사업의 위대한 생활력과 그 군중적 성격을 진실하게 반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형상화의 수법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같은 주제에 바쳐진 희곡 《꽃은 계속 핀다》가 실천적으로 해답을 준 바와 같이 작품의 사상 주제적 과업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무수한 갈등 설정과 해결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은 생활 속에서 우리 시대의 본질을 체현하는 전형적인 사실들을 식별하며 잡다한 생활 현상 속에서 작품의 소재를 갈라 낼 줄 알아야 하며 그 생활적 진실을 예술적 진실에로 형상화할 줄 알아야 한다. 생활적 사실의 라렬만 있고 전형화되지 않을 때에 기록주의가 생기며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가진 우리의 생활을 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고 생활에 대한 일반적이며 피상적인 기성 지식에 의하여 예술 작품을 자의적으로 꾸며 낼 때 류사성을 면할 수 없다.

거듭 말하게 되거니와 예술은 창조의 결실이다. 한 작가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편의 작품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그 매개의 작품들은 주제와 사상의 측면에서도, 형상화의 수법에서도 심화되고 발전되여야 하며, 작가의 고유한 문체를 가지고 항상 새로운 세계를 보여 주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 예술 창작에서 전형화가 가지는 의의가 있으며 작가의 부단한 탐구와 창조에 대한 그처럼 절실한 요구가 제기되는 것이다.

작가가 시대 정신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성격적 특성을 더 깊게 더 잘 알수록, 영광스러운 로동당 시대에 살고 창작하는 자각과 보람으로 자기 심장을 더욱 뜨겁게 불태울수록, 창조적 기량을 련마하기 위하여 더욱 심혈을 기울일수록, 그 만큼 보다 우수한, 영원히 인민의 심장에 살아 남을 불멸의 작품—시대의 기념비를 창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시기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의 심각화

김 성 제

현 시기 세계 정세 발전의 주요 추세의 하나는 제국주의 진영 내부의 모순과 충돌이 2 차 대전 후 가장 심각화되고 있는 사실이다.

제국주의 진영을 분렬시키고 있는 암투와 공개적인 충돌은 시장과 령도권 문제를 둘러 싸고 서구라파를 중심하여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초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구라파에 대한 지배 문제 즉 《통일된 구라파》가 미국이 지배하는 구라파로 되는가 혹은 불란서가 통제하는 《구라파인의 구라파》로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모순과 충돌의 심각성은 그것이 제국주의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는 데, 싸움의 무대가 바로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이 집중되여 있는 서구라파라는 데, 그리고 제국주의 세계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지위가 위협과 《도전》을 당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서구라파 《공동 시장》이 창설된 이래 그것을 론거로 삼으면서 서방의 《단결》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온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의 선전의 기만성과 부당성을 여지 없이 폭로하고 있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독점 자본은 우연적, 일시적 요인에 의하여 림시적 《랭전》의 《련합》을 형성할 수 있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강도의, 승냥이들의 《련합》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련합》은 제국주의에 고유한 모순을 《완화》도, 《배제》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더욱 격화시킬 따름이다.

오늘 제국주의 진영을 사분오렬케 하고 있는 모순과 충돌은 더욱더 새로운 양상을 띠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것은 현 시대의 기본 모순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모순이기는 하나 《실력에 따라》, 《자본에 따라》 세계를 재분할할 것을 요구하는 제국주의 진영 내부에 고유한 모순이 주요한 모순으로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

제국주의 진영을 분렬 직전에 이르게 하고 있는 심각한 모순과 충돌은 우연적으로, 일조일석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반대하여 나선 불란서 대통령 드 골 개인에 의하여 야기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제 2 차 대전 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가일층 심각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성과 서구라파에 대한 미국의 침투 정책과 관련되여 있다.

미제는 제 2 차 대전을 통하여 더욱 팽창된 자본과 군사력에 의거하면서 전후 구라파 제국주의 경쟁자들이 약화된 것을 기화로 제국주의 시장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분할하였으며 세계 제패 야망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 섰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마샬안》과 기타 《원조》 수단을 통하여 후진 국가들 뿐만

아니라 서구라파 나라들의 경제에 침투하여 이 나라들을 상품 판매와 투자 시장으로 전변시켰으며 나토 등 군사 쁠럭을 통하여 서구라파 나라들에 대한 군사,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최근 년간에 이르러 제국주의 진영 내부에서는 심각한 력량 관계의 변화가 일어 났다. 레닌은 정치 경제적 발전의 불균등성은 제국주의 발전의 절대적 법칙이라고 지적하였다.

대전 과정에서 약화되였던 불란서는 이미 자기의 경제력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에서 자기의 경쟁 능력을 급격히 강화하였으며 전패국이였던 서부 독일, 이태리 등 나라들도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현 시기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불균등성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경제 발전 속도가 다른 제국주의 국가의 그것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으며 제 2 차 대전에서의 전승국들의 발전 속도가 전패국들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는 데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서 주요 자본주의 렬강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위 변동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 공업 생산에서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의 비중의 변화 정형 (%)

	1948년	1955년	1962년
미 국	53.4	48.8	43.6
서구라파	30.4	34.0	35.3
서구라파 《공동 시장》	12.7	17.8	20.8
영 국	11.2	10.1	8.8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기간에 미국과 영국의 비중은 9.8%, 2.4%가 각각 감소된 반면에 《공동 시장》 참가국들의 비중은 8.1%가 장성하였다.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50 년대 이래 서구라파 대륙의 경제 발전과 대외 무역의 장성 속도는 다른 지역의 자본주의 나라들에 비하여 2~3 배나 빨랐다. 자본주의 세계 무역에서 서구라파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30% 이상에 달하고 있다.

특히 불란서는 경제의 장성과 외화 예비의 증대, 매일 200 여만 딸라를 소모했고 50만 군대를 투하하고 있던 알제리아 전쟁의 종식, 핵 무력 창설에서의 일정한 전진 등과 관련하여 그 지위가 현저히 강화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제의 《원조》에 의거하고 있던 불란서는 지금에 와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제의 예속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였다. 서부 독일의 경제가 비교적 빨리 장성하였는데 자본주의 세계 공업 생산에서 서부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8~1961 년간에 5.4%가 장성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란서는 독자적인 핵 무력 창설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 일정한 전진을 달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란서, 서부 독일 등 서구라파 나라들은 《딸라의 명령》이 절대적이고 자기의 경쟁 능력이 약하고 미국의 《원조》가 필요하였던 동안에는 미국에 순종하고 그의 통제를 감수하였으나 력량 관계가 변화되고 자기의 지위가 강화된 오늘의 조건에서 그에 상응하게 자기의 정치적 및 군사적 지위, 세계 시장의 재분할을 요구하여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출판물들이 《파리와 본에서는 미국의 제안들이 더는 용이하게 접수될 수 없게 되였다》고 비명을 올린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불란서의 한 실업가는 미국이 구라파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을 반대하면서 《당신들, 미

국인들은 지금이 아직도 1946년이나 1947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신들은 불란서인이나 독일인들이 담배 한 갑을 위하여 어떤 것이든지 하리라고 아직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후로 만사는 달라졌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제국주의 렬강 간의 력량 관계가 변하였으며 따라서 힘을 시장 분할과 세계 제패의 기초로 삼고 있는 제국주의 강도들이 현상에 만족할 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시기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은 또한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적 난관과도 관련된다. 부르죠아 선전과는 반대로 오늘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 형편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경제는 거의 같은 자리에서 답보하고 있으며 막대한 상품이 체화되고 국제 수지 적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는 동시적인 공황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으며 공황의 위험은 공업, 농업, 금융 등 각 분야를 포괄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의 《유 에스 앤드 월드 리포드》지까지도 《생산 과잉은 자본주의 세계 전반의 더욱 극심한 위험》으로 되였다고 쓰게 되였다.

공황의 위험은 제국주의 국가들을 대외 팽창과 시장 쟁탈을 위한 백열전에로 내몰고 있다. 특히 심각한 딸라 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미제의 침략성과 횡포성은 어느 때보다 강화되였다.

이렇듯 현 시기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과 충돌은 제국주의 발전 그 자체에 깊이 뿌리 박고 있으며 그것은 《완화》될 수도 해소될 수도 없는 것이다.

2

제국주의 렬강을 분렬시키고 있는 심각한 모순과 충돌은 우선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문제를 둘러 싸고 날카롭게 표현되고 있다.

서구라파 《공동 시장》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더욱 심각화되고 있는 환경에서의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의 산물인 동시에 그 모순을 가일층 격화시키고 있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물론 《공동 시장》의 창설이 나토의 경제적 지반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고 민족 해방 운동과 전후에 강력히 진출한 자본주의 나라 로동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발족하였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전후 급속히 팽창된 서구라파 독점 자본이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과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급격한 붕괴로 말미암아 제국주의 시장이 현저히 축소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시장 쟁탈을 지향하며, 서구라파에서 자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그것을 미 영의 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데 있었다. 따라서 이 《경제 공동체》는 침략과 집단적 식민주의를 지향함과 동시에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공동 시장》은 자기 발전의 첫 단계에서 참가국들 간에 특혜적 관세를 실시하며 비참가국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 장벽을 설정함으로써 미국, 영국 독점 자본의 침투로부터 구라파 시장을 보호하며 나아가서 미 영 독점 세력을 점차 구축해 버릴 것을 목적하고 있다.

특히 불란서는 《공동 시장》을 통하여 구라파를 경제적으로 지배할 뿐만 아니라 서부 독일의 지지 밑에 서구라파의 《정치적 통합》을 실현함으로써 서구라파에서 패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파리-본 축》의 형성은 이러한 야망을 실현하려는 드 골 계획의 일환으로 된다.

즉 미국과 나토 리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출현한 《공동 시장》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미국의 유력한 경쟁자로 등장하여 나토 내에서 배타적인 뿔럭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불란서와 서독은 그에 의거하여 나토의 령도권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점 자본가들이 구라파를 불란서의 지배 하에 내여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영국은 《공동 시장》에 대치하여 북구라파 국가들을 인입하여 7 개국의 《자유 통상 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불란서와 서독을 중심으로 하는 배타적인 경제 뿔럭에 대항하려 하였다. 그러나 《자유 통상 지대》는 《공동 시장》과의 첫 대결에서 참패를 당하였으며 영국으로서는 구라파에서 배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동 시장》에 가입할 것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은 《공동 시장》에 들어 감으로써 구라파에서 새로 조성된 력량 관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구라파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타산하였다. 영국은 동시에 영 련방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동 시장》 참가국, 우선 불란서가 영국의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리 만무한 것이다.

이와 같이 엉키고 서린 리해 관계의 충돌로 하여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은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결렬의 직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공동 시장》의 경쟁 능력이 강화되고 그 배타적 성격이 더욱 명백해짐에 따라 영국에 못지 않게 초조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우선 미국 지배층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1961년에 등장한 케네디 행정부는 《상호 의존》이라는 구실 밑에 서방 제국을 재편성하며 미국의 령도권을 재확립할 것을 타산하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파리-본 축》을 핵심으로 하는 《제 3 세력》의 형성을 사전에 파탄시키며 나아가서 미국이 지배하게 될 《대서양 공동체》의 구상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미제는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투자를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공동 시장》에 대한 영향을 강화하려 하며 다른 측면으로는 《무역 확대법》을 통하여 《공동 시장》 관세 장벽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1960년 한 해 동안에만도 미국 독점체들의 대서구라파 투자액은 15억 딸라에 달하였다. 이것은 《공동 시장》이 출현하기 전인 1955년의 그것에 비하여 7 배나 된다. 미국의 대서구라파 민간 투자는 1957년부터 1961년 기간에 2 배 이상 장성하였다.

서구라파에 대한 미국의 직접 민간 투자

(단위 100만 딸라)

년도	1956	1959	1961
서구라파 전체	3,520	5,323	7,655
《공동 시장》	1,399	2,208	3,041
서 독	429	796	1,170
불 란 서	427	640	840
이 태 리	207	315	467
화 란	186	245	308
벨 기 와 룩셈부르그	150	211	256

정치적 측면에서는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이 뿔럭 내에서의 불란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약화하고 종국적으로 이 배타적인 뿔럭을 미제가 구상하는 《대서양 공동체》에 흡수하려 하고 있으며 군사적 측면에

서는 서방 세계에서 핵 무기의 우세를 리용하여 서구라파 렬강의 《독자적 핵 무력》 계획을 포기케 하고 나토 내에서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며 나아가서 세계 제패 계획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기도를 간파한 불란서 대통령 드 골이 지난 1월 14일 기자 회견 석상에서 영국을 《공동 시장》에 받아 들일 수 없는 리유를 설명하면서 영국이 가입하는 경우 《결국 거대한 대서양 공동체가 출현하여 미국에 의존하며 그의 지배 하에 들어 가는 것으로 되며 구라파 공동체는 마침내 그 속에 흡수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우연하지 않다.

《드 골의 거부권》에 의한 브류쎌 회담의 결렬에 의하여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과 충돌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으며 그것은 《공동 시장》 가입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있던 맥밀란 정부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공동 시장》에 가입함으로써 자기의 지위를 회복하며 경제의 침체 상태를 회복하려던 영국 독점 자본가들의 꿈은 일단 깨여지고 말았다.

서방 세계의 《단결》의 파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미 제국주의다. 《무역 확대법》은 나오기도 전에 치명상을 입었으며 케네디의 《대서양 공동체》 구상은 한갖 지상 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 폭로되였다.

브류쎌 회담이 결렬된 후 서방 지배층 속에는 오늘 종국적인 분렬을 예감하는 침울하고 불안한 공기가 떠돌고 있다.

브류쎌 회담의 결렬이 그처럼 불안과 초조감을 야기시키고 있는 리유는 어디 있는가?

서구라파에서 《공동 시장》이 창설된 이래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서방의 《단결》에 대하여 떠들었으며 심지어 지난 1월 14일 케네디는 일반 교서에서 《자유의 구라파는 바로 그의 유구하고 빛나는 력사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국가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던 시대는 없어지고 서로 의지하고 단결하는 새 시대가 형성되고 있다. 구라파의 자유 국가들은…의견 일치를 보고 있으며 각 활동 분야의 목적, 력량 및 정책 상에서 점차 일치하게 나가고 있다》, 《우리는 새 구라파에 대하여 영원히 분노를 품지 않을 것이며 자유 구라파를 친근한 동맹자로 보지 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하였다. 케네디의 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브류쎌 회담이 결렬되였다는 엄연한 사실은 그야말로 풍자적인 대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케네디는 목소리를 바꾸어 《분노》를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북대서양 블럭에 《틈》이 난 데 대하여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브류쎌 회담이 결렬된 결과 북대서양 동맹이 더욱 분렬되며 금후 암투와 충돌이 더욱 격화되리라는 것은 기정 사실로 되였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지배층들 속에서 불안이 떠돌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음으로 브류쎌 회담의 결렬은 서구라파에서 서독과 불란서를 중심으로 하는 《제 3 세력》 형성을 저지하고 《대서양 공동체》의 구상과 《통상법 확대》 계획을 실현하려던 케네디 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는 데 있다.

심각한 경제적 모순은 나토 블럭의 통수권 문제와 엉켜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을 더욱 착잡하고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이 문제는 나토 창설 초시기부터 그 성원국들 간의 갈등의 중심 문제의 하나로 되여 왔다. 나토 무력이란 미명 하에 그 성원국들의 무력을 통제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처음부터 나토 성원국들의 반대에 봉착하여 왔다. 특히 미제는 핵 무기의 통제권을 독점함으로써 《동맹국》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데 상전의 지배에서 벗어 나며 나토에서의 령도권을 요구하여 나서고 있는 나라들이 그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제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제 폴라리스 유도탄으로 무장되는 나토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것은 핵 무기를 참망하는 서구라파 국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듯한 인상을 주면서 사실인즉 서구라파의 핵 무력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미제가 장악하며 서구라파의 독자적인 핵 무력 창설을 포기케 하려는 것이다. 사실 미제는 폴라리스를 비싼 값으로 서구라파 국가들에 팔기는 하되 핵 탄두를 팔 의사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포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의 이 계획은 나토 리사회 때마다 토의되였지만 독자적 핵 무력을 보유하려는 불란서의 반대, 재정 문제, 나토 내의 령도권 문제, 《다각적 핵 무력》의 운영 문제 등과 관련한 나토 성원국들의 의견 불일치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미제는 나쏘 회담을 통하여 우선 영국으로 하여금 미제의 계획을 접수시키고 독자적 핵 렬강으로 되려는 야심을 포기케 하였다. 《공동 시장》 문제로 하여 진퇴량난의 곤경에 빠진 영국은 《공동 시장》 가입에서 미제의 지지를 받는 대'가로서 미제의 《다각적 핵 무력》 계획을 접수하고 미국에 굴복한 것이다.

《다각적 핵 무력》을 나토에 강요하려는 미제의 계획은 부르죠아 출판물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불란서에서 《폭탄과 같은 타격》을 받았다. 불란서는 미제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독자적 핵 무력이 없이는 자주권이 있을 수 없다는 립장에서 물러 서려고 하지 않고 있다. 불란서는 《파리-본 축》의 강화로써 미 영의 나쏘 정책에 맞서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모순이 결국 불란서로 하여금 미국의 갖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완전히 거부케 하였으며 케네디가 구상한 《대서양 공동체》를 사상 누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미 국무 장관 러스크가 불란서를 제쳐 놓고라도 《다각적 핵 무력》을 창설하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드 골은 《공동 시장》에서 탈퇴할지라도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반대할 것이라고 울려대고 있다. 실지 불란서의 지지가 없이는 《대서양 공동체》의 실현도, 《무역 확대법》도,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도 불가능한 것이며 구라파에서의 미제의 패권 확립도 곤난한 것이다. 화란 외상까

지도 《드 골이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공동 시장〉의 정치적 통합이란 문제로 도 될 수 없다.》고 불안을 표시하고 있다.

최근 시기에 《공동 시장》 참가국들의 재정상 회의가 파탄되였으며 구라파 《공동 시장》 참가국들과 영국으로 구성되여 있는 서구 동맹 각료 리사회도 불란서의 보이꼬트로 말미암아 역시 류산되고 말았다. 불란서는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문제를 토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회의에 참가하겠다는 립장을 고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 렬강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불란서가 고립될 위험을 무릅쓰고 그처럼 강경한 립장을 취하고 있는 데는 일정한 근거가 있다.

오늘 불란서는 미 영과의 시장과 령도권을 위한 싸움에서 자기 《밑천》을 가지고 있다.

우선 불란서의 경제 지위가 상대적으로 장성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의 경쟁 능력이 강화되였으며 미국에 대한 불란서의 의존 정도도 감소되였으며 미국의 《원조》에 의거하지 않게 되였다는 데 있다.

다음으로 불란서는 군사적 면에서 독자적 핵 타격력을 창설하는 데서 일정한 전진을 보고 있으며 알제리아에서의 식민지 전쟁을 결속시킴으로써 전쟁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리고 불란서와 서부 독일 간의 결탁이 불란서가 미국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고 있는 사실이다. 불란서-서부 독일 협조 조약이 체결되고 《파리-본 축》이 조약으로 고정된 사실은 드 골이 《구라파인을 위한 구라파》 계획의 실현에서 서부 독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사실상 서부 독일이 불란서 편에 서 있는 한 미국이 불란서를 고립시키고 《공동 시장》을 파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모순과 충돌은 또한 《공동 시장》 내부에서도 더욱 로골화되고 있다.

《공동 시장》 참가국들은 미 영 독점 자본의 침투를 반대하는 데서는 공통한 리해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는 벗의 희생도 꺼려 하지 않는 그들은 동상 이몽하면서 서로 물고 뜯는다.

이태리, 화란, 벨기, 룩쎔부르그는 《공동 시장》이 불란서나 서부 독일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들로서는 불란서와 서부 독일의 패권을 제지하기 위하여 오히려 미 영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이태리가 이러한 립장에 서고 있는데 지난 2월 초에 진행된 판파니와 맥밀란 간의 회담에서는 이태리와 영국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불란서를 비난하고 있다. 이태리는 《로마-런던 축》을 형성하여 《파리-본 축》에 대항하며 미제에 추종하는 대'가로서 《다국가 핵 무력》의 통수권에 한 몫 끼여 들어 갈 것을 참망하고 있다.

《파리-본 축》 역시 제각기 구라파 패권을 탐내고 있는 두 강도들 간의 일시적 동맹에 지나지 않는다. 서부 독일은 불란서와의 동맹을 통하여 미제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다국가 핵 무력》 창설을 지지함으로써 자기의 지위를 강화하며 핵 무기의 통수권에 끼여 들어 가며 복수주의적 계획 수행에서 미제의 지지를 받을 것을 타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적 동맹이란 어데까지나 강도적 동맹이며 강도들은 단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레닌의 결론이 현 시기에 있어서도 완전히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준다.

나토의 테두리 내에서 일시적으로 유지되여 오던 제국주의적 동맹 내부에서는 마침내 파렬구가 생겼으며 이 파렬구는 점차 확대되면서 제국주의 진영을 분렬과 붕괴에로 이끌어 가고 있다.

서구라파에서 패권 쟁탈을 위한 서구라파 제국주의 렬강과 미국 간의 투쟁은 아직 시작된 데 불과하다.

이미 새로운 경제 위기에 들어 섰거나 들어 서려는 제국주의 렬강들 간의 모순이 더욱 심각한 성질을 띠고 발전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미국이 앞으로 어떠한 대책과 책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위협하는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국이 서구라파 나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얼마간 약화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자본주의 세계의 괴수로 또는 중심으로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가장 큰 국제적 착취자이며 현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동의 지주이며 신식민주의의 아성이다.

미국은 패배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으며 서구라파에서 자기의 령도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이 집중되여 있는 서구라파에서 모순과 충돌이 그처럼 과거에 보기 드문 현상으로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미구에 닥쳐 올 모순의 규모와 정도의 첨예성을 예시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제국주의 렬강들 간의 모순의 첨예화는 제국주의 진영의 사분 오렬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보세 가공 무역이란 무엇인가

최근 일본 독점 자본은 《한일 회담》의 막 뒤에 숨어서 각이한 형태로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적극화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간교한 형태의 하나가 보세 가공 무역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보세 가공 무역이란 무엇인가?

보세(保稅)란 외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일시 관세의 부과를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외 무역에서 수출, 수입되는 상품 및 선박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란 것은 수출, 수입되는 상품들이 해당 국가의 관세 경계선을 통과할 때에 징수하는 간접세이다. 이것은 외국 상품의 자유로운 류입을 막아서 국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의 재정적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가공 무역이란 외국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것을 가공하거나 정제한 다음 다시 수출하는 무역을 말한다. 이것은 산업과 무역을 밀접히 결부시켜 외국의 자원과 시장을 리용함으로써 자기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무역 형식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세 가공 무역이란 일반적으로 천연 자원이 부족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관세의 부과 없이 수입된 원자재를 보세 공장에서 가공하여 이것을 제 3 국에 재수출하는 무역의 한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나라의 원료 또는 관세의 부과 없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특정한 원료, 자재 및 반제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제한된 지역 즉 보세 구역 내에서 가공한 후 수출세를 물지 않고 재수출하는 무역의 한 방식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흔히 쓰이는 보세 가공 무역에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외국의 가공 위탁자가 원자재를 제공한 후 그에 대한 가공비만을 물고 다시 수출하는 형태의 위탁 가공 무역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의 가공업자와 제 3 자와의 중간에서 가공 업무를 담당 수행함으로써 가공비만을 얻는 중계 가공 무역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왜 이러한 형태의 무역을 택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보세 가공 무역을 체결하는 나라들 서로가 추구하는 목적이 각이하다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즉 보세 가공 무역을 허용하는 나라는 중계 무역, 가공 무역을 장려하여 운임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한다. 한편 보세 가공 무역을 체결하는 다른 나라는 부족되는 원자재를 외국에서 얻기 위하여 원료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자기의 공업 시설을 설치하여 그 나라의 원료를 리용하거나 또는 유휴 시설로써 보다 많은 리윤을 추

구하며 외국 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리용한다. 이처럼 두 나라는 시장 확대와 리윤 추구의 공통한 리해관계에서 호상 결합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보세 가공 무역이란 어떤 것이며 그것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이것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조선에 대한 일본 독점 자본의 보세 가공 무역이 어떻게 침투되였는가 하는 것부터 고찰해야 하겠다.

일본 독점 자본이 보세 가공 무역의 형태로 남조선에 로골적으로 침투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원래 생산의 급속한 발전과 협소한 시장 간의 모순으로부터의 출로를 해외 팽창에서 찾고 있던 일본 독점 자본은 동남 아세아 특히는 남조선에 대한 재침의 기회를 오래 전부터 노려 왔다. 그러던 것이 일본과 남조선을 묶어 세워서 침략적 군사 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강력한 압력과 박 정희 도당의 친일 매국 정책에 의하여 《한일 회담》이 재개됨과 관련하여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침투는 점차 적극화되여 갔다. 이리하여 작년 2월에는 23 개의 일본 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보세 가공 무역 조사단》이 남조선에 기여 들게 되였고 이것을 계기로 보세 가공 무역 형태에 의한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침투는 일층 표면화되였다. 이 《조사단》의 목적은 《한일 국교 정상화 전이라도 보세 가공 공장, 지하 자원 개발 등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개시할 준비를 추진시키는 데 있었다. 이것은 박 정희 도당의 외세 의존 정책과 관련하여 더욱 급속히 진척되였다.

소위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을 위한 자금의 태반을 외국에서 끌어 들일 것을 타산한 군사 《정권》은 《국교 정상화 전에라도 민간 경제 협력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세법》을 개정하여 국교가 개시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서도 《보세 지역》의 설정을 인정하였으며 《보세 가공 공장 운영 특혜에 관한 규정》, 《보세 가공 무역의 허가 절차》 등을 조작하여 일본 독점 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한 태세를 취하였다. 군사 《정권》은 지어 남조선 각지에서 400 여 개에 달하는 유휴 기업체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며 《한일 광공업 진흥 회사》라는 일본 독점 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접수 기관까지 조작하였다.

이것을 기화로 하여 일본 독점 자본은 보세 가공 무역의 명목 하에 서울,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수도 시설 공사와 메리야스 가공, 연안 어업 지대에서의 어망, 어구 가공 등 눈에 띄우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엔진 공장 시설, 세멘트 가공 시설, 광산 개발과 지어 침몰 선박 인양에 이르기까지 남조선 경제의 전반에 걸쳐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지어 일본 독점 자본은 불안정한 남조선의 정치 정세와 경제 사정에 비추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바다의 《가공선 공장》까지 설치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 일본의 낡은 땅크 상륙정을 가공선으로 개조하여 가공 선군(船群)을 부산항 앞바다에 정박시켜 놓은 다음 미군의 호위와 전력 공급까지 받아 가면서 《기술자 위탁 양성》의 미명 하에 괴뢰 국군 학교 출신 하사관과 남조선의 실업 로동자를 일본

로동자의 로임의 3 분의 1도 안 되는 저임금으로 고용하려 하고 있다. 이 《가공선》의 업무는 자동차와 라지오의 조립과 비료의 가공 등이 주되는 것으로서 《미쯔비시》, 《도시바》 등 일본의 대재벌이 이에 끼여 있다.

이처럼 일본 독점 자본은 보세 가공 무역의 간판 밑에 남조선의 중소 산업으로부터 점차 중화학 기타 기간 산업에로 그 촉수를 뻗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잡지 《에코노미스트》도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보세 가공 무역은 《사실 상 거대한 기업 진출》(1962년 9월 11 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우연치 않다.

보는 바와 같이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에 대한 보세 가공 무역이란 경제적 침략을 위한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 일본 독점 자본은 보세 가공 무역으로서 우선 남조선에 터전을 닦아 놓고 앞으로 《국교 정상화》된 후 본격적인 경제 침투를 하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보세 가공 무역은 처음부터 로골적인 침략적 성격을 띠였다. 그것은 보세 가공 무역 방식에서 여실하 나타나고 있다.

원래 보세 가공 무역을 허용하는 나라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나라의 국내 산업 발전을 보호하기 위한 응당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통례로 되여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책이 취해지지 않을 때에는 자기 나라의 임의의 산업 부문에 외국 시설과 자본이 침투되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렴가한 상품이 자기 나라 시장에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내 산업 발전을 저애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통제와 제한이 강구된 조건 하에서 보세 가공 무역이 진행된다. 즉 외국에서 반입되는 원료, 자재 및 반제품의 품종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보세 가공 지역을 수출입 항구 부근의 극히 제한된 구역으로 한정할 뿐만 아니라 보세 가공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국내 판매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그러나 남조선에 대한 일본 독점 자본의 보세 가공 무역은 그 설치 구역과 업종조차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또 보세 가공 공장에서 가공하였거나 정제한 제품을 남조선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여 있다.

그리하여 일본 독점 자본은 《보세 가공》이라는 명목 하에 현재 휴업, 폐쇄 중에 있는 남조선의 설비와 시설에 일본에서 팔리지 않는 원료와 자재, 기술을 투입하여 일본에 비해서 3 분의 1 밖에 안 되는 값눅은 로동력으로 가공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보세 가공 무역 수출입의 내막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이른바 보세 가공 수출 무역은 일본의 원료, 자재, 반제품을 관세의 부과 없이 남조선에 수입하여 가공한 후 제 3 국 또는 남조선에 재수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일본 독점 자본이 아무런 관세도 물지 않고 자기의 원료, 자재, 반제품을 남조선의 임의의 생산, 류통, 봉사 분야에 침투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세 가공 수입 무역 역시 남조선의 원료를 관세의 부과 없이 일본에 수출하여 그 곳에서 가공한 후 남조선에 재수입한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남조선의 지하 자원과 농산 및 수산물 등을 헐값으로 일본에 들여다가 약간 가공한 후 완제품으로써 다시 남조선에 팔아먹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 받자는 것이다. 그런즉 보세 가공 무역 수출입이란 모두가 남조선에 대한 일본 독점 자본의 본격적 진출을 준비하며 그것을 은폐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일본 독점 자본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은폐물이 필요한가?

일본 독점 자본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을 시도함에 있어서 근 반 세기에 걸친 일제의 강점 결과에서 오는 남조선 인민의 격화된 반일 감정을 타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상 1961년 장 면 《정권》 시기에 남조선에 기여 들려던 일본 《경제 시찰단》이 남조선 인민의 강경한 《일본 시찰단 입국 반대》의 반일 기세에 눌리여 일본 《하네다》 비행장에서 비행기 승강대를 밟으려다가 뒤로 돌아 서지 않으면 안 되였던 것은 아직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그러므로 아무리 남조선 재침에 눈이 어두워진 일본 독점 자본이라 해도 침략의 촉수를 서뿔리 뻗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바로 이러한 형편에서 일본 독점 자본은 남조선 인민들의 반일 감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른바 《무역》의 간판을 내걸었던 것이다. 왜냐 하면 무역은 호상 리익의 취득을 목적하기 때문에 남조선 인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상품 시장을 확대할 것을 타산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독점 자본은 자기들의 이러한 침략적 목적을 은폐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남조선 보세 가공 업자들과의 《합영》이니, 《협력》이니 하는 것을 크게 내놓고 있다.

그러나 원료, 자재와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남조선의 기업체들과 자금, 자재 및 기술자와 경영자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 팽창 단계에 이르고 있는 일본 독점 자본과의 《합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묻지 않아도 자명하다. 그것은 남조선 현실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일본 독점 자본은 《합영》의 간판 하에 공공연하게 폐쇄 또는 휴업 중에 있는 남조선 공장들에 자재, 자금과 기술자를 보내고 있으며 경영자까지 파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수는 점차 늘어 나고 있으며 이미 령세한 산업 부문으로부터 중화학 공업 부문과 기타 기간 산업 부문에로 그 촉수를 뻗쳐 나가고 있다.

이것은 《보세 가공》의 명목 밑에 남조선 기업체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일본의 기술, 일본의 원료와 반제품에 의존케 함으로써 남조선 경제의 명맥을 틀어 쥐려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 남조선에 대한 일본 독점 자본의 보세 가공 무역이 노리는 진의도가 숨어 있다.

그러면 박 정희 도당은 이처럼 침략적인 보세 가공 무역을 통하여 무엇을 얻자고 하는가?

그것은 지금 남조선에서 극도로 심화된 경제적 파국으로부터의 출로를 찾자는 데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공업과 농업 생산의 전면적 위축과 식량을 비롯한 중요 물자의 결핍, 악성적 인플레 위기의 급격한 첨예화로 인한 경제적 혼란과 불안이 시시각각으로 증대되여 이미 막다른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민 생활의 령락은 더욱 급속히 촉진되여 가고 있다. 이러한 전면적 경제 위기에서 벗어 나려고 하는 박 정희 도당은 남조선 인민에 대한 가혹한 수탈과 함께 소위 미제의 《원조》 증가와 외국 독점 자본 도입에 적극 매달리고 있다.

이에 있어서 박 정희 도당은 굴욕을 무릅쓰고 일본 독점 자본에 의거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재산 청구액》을 상환받음과 동시에 일본 독점 자본을 적극 끌어 들이여 현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 정희 도당은 보세 가공 무역을 통하여 일본 독점 자본의 본격적인 남조선 침투의 길을 개척해 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어 그들은 마치도 보세 가공 무역이 《국제 수지》를 개선하며 《5 개년 계획 자금을 념출》한다고 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을 허위 기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보세 가공 무역은 결코 군사 《정부》의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 수지》의 악화를 가져 오며 또한 그것은 《자금 념출》이 아니라 반대로 일본 독점 자본에게 안정된 자본 투자지를 마련해 줌으로써 더욱 착취 당하게 된다. 결국 이것은 남조선 경제를 미제와 더불어 일본 독점 자본에게 이중적으로 예속시키는 것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은 일본의 독점 자본 침투를 견결히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보》는 《일본의 보세 가공 무역이란 그들의 잉여 시설 능력을 한국의 값싼 로임과 결부시켜 한국에서의 시장 개척을 시도하는 동시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광산물과 수산물을 반출해 가려는 일석이조의 실리》를 노린 것이라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에서의 보세 가공 무역, 그것은 남조선에 대한 일본 독점 자본의 본격적인 경제 침략을 준비하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보세 가공 무역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재침을 반대하는 투쟁의 길이며 남조선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수립을 위한 투쟁의 길이다.

서 성준

공장, 기업소에서의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과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현 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현존 로력과 설비의 최대한의 리용에 기초한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는 다름 아닌 생산과 로동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복구 사업이 위주로 되였던 지난 시기에는 공장, 기업소들에 생산적 예비가 많았으며 사람들에 대한 사상적 동원을 잘 하는 것만을 가지고도 예비를 얼마든지 탐구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민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부문 간의 련계가 복잡해졌으며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여 우리의 공업은 훨씬 째워졌다.

또한 우리는 각오 정도가 높은 근로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열성에 의하여 이미 많은 예비를 찾아 내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열성 하나만 가지고는 더는 예비를 동원할 수 없다. 지금에 와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사업을 잘하고 지도를 개선하고 관리 수준을 높이여 예비를 얻어 내는 것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적인 타산과 구체적인 계획 밑에 조직 사업을 면밀히 한다면 더 많은 예비를 얻어 낼 수 있으며 현존하는 로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로력의 절대적 증가 없이 우리 앞에 제기된 전투적 과업을 능히 훌륭하게 보장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은 오늘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이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 생산 조직이란 무엇이며, 로동 조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공장, 기업소에서의 생산 조직이란 한 마디로 말하면 생산의 세 가지 요인—로동 대상과 로동 수단 및 로동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이다.

공장, 기업소에서의 생산 조직에는 기본 및 보조 직장의 작업 조직, 자재 설비 및 공구의 보장, 기계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 기술 준비 선행 및 새 제품에 대한 시험 생산의 조직 등 생산 활동과 관련된 모든 조직 사업들이 다 포괄된다.

생산 조직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 중요하게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는 것이요, 기계, 설비들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보수하는 것이요,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을 제때에 대주는 것 등등을 의미한다.》 (김 일성 선집 제 6 권, 413~414 페지)

생산 조직 사업 중에서도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로동 조직이다. 그것은 생산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로동 대상과 로동 수단을 결합시키는 생산자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로동 조직이란 생산자들이 로동 시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가장 유리한 로동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제 대책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동자들의 기능과 성별, 능력에 따르는 합리적 배치, 작업장 및 교대의 올바른 조직, 로동 안전 대책의 강구, 사회주의 경쟁의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및 로동 조직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잘하면 기계,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생산을 정상화

할 수 있고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그것을 극력 절약할 수 있으며 로동 생산 능률과 1 인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생산 및 로동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매개 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마다 생산 공정, 기술적 조건이 다르며 생산 장성과 계획 지표의 변동에 따라 생산 조건도 달라진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더 많은 예비를 찾아 내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자기 실정에 맞게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을 개선해야 할 것은 두말할 여지 없다.

우리는 금속 화학 공업성 산하 몇 개 기업소들의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문제들이 오늘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기업소들은 기대 배치 및 설비 관리, 자재 보장, 로력 조직 기타 생산 활동과 관련되는 제반 요인들을 구체적 타산 밑에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기계 설비에 대한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그의 정상적 가동을 보장하며, 자재를 제때에 대 주며, 현존 설비 능력을 최대한 리용하는 이 제반 문제가 일'군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가 하는 데 크게 달려 있다.

다음의 실례가 그것을 잘 말하여 준다. 청진 제강소에서는 작년도에 7 대의 회전로 중 5～6 대만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나머지 1 대는 주기적으로 보수하도록 생산 조직을 개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로력 배치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회전로의 생산 능력에 맞게 조직함으로써 로력을 절약하고 기술 력량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로의 보수 작업에서는 전환이 일어 났으며 로의 정상적 가동이 보장되고 립철 생산은 급격히 장성되였다.

구 분	생산량 (%)	로동자 수 (%)	1 인당 생산량 (%)
1962년 3월 (개편 전)	100	100	100
1962년 9월 (개편 후)	106.2	95.4	116.8

종전에 7 대의 로를 움직일 때에는 회전로의 가동을 정상화할 수 없었다면 생산 조직 사업을 개편한 후에 와서 6 대의 회전로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로들의 가동을 완전히 정상화할 수 있었다.

가동하는 회전로의 대수는 줄었으나 생산량이 106.2%로 장성된 것은 로의 가동이 정상화되고 그의 능력이 더 잘 리용됨으로써 로당 생산량이 현저히 장성되였음을 말하여 준다.

이것은 생산 조직을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부단히 개선한다면 생산의 모든 고리에서 커다란 예비를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오늘 기업소들에서 구체적 타산 밑에 생산 조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생산 장성의 기본적인 요인들과 큰 것에 대해서만 관심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천 광산에서는 갱 건설에서의 불합리한 시공 조직을 개선하고 갱도의 경사(시공 규정상 갱도 1,000 메터당 2～3 메터까지의 경사가 허용됨)를 없이하여 현대적 생산에 적응하게 정비 보강함으로써 종래 한 대의 광차를 두 사람이 밀고 다니던 것을 대부분의 운반 계통에서 한 사람이 능히 밀고 다닐 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지난 1.4 분기에는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179%로 제고시켰다. 이것은 큰 것도 중요하지만 일'군들이 짜고 들어 잘 조직만 한다면 극히 간단한 데서도 많은 생산과 로력 예비를 적발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을 장성시키며 더 많은 예비를 찾아 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생산 조직 사업을 부단히 완성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로동 조직에 대하여 보자. 옳은 로동 조직은 로동 생산 능률의 체계적인 장성을 가져 오도록 로력을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로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것은 현 시기 로력 조직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제반 대책들이 일'군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여 있으며 그와 떼여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상 일부 기업소들에는 로력 배치에서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건장한 청장년들이 경로동 부문에서 일하거나, 녀성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사무 부문에 남성들을 배치하거나, 고급 기능공이 해야 할 일을 무기능공들에게 맡기는 등 로력이 효과적으로 리용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조건에서 오늘 생산자들을 그들의 준비된 기능과 체질, 성별, 취미, 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사업을 잘 풀어 나간다면 일'군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로력 예비를 동원할 수 있고, 현존 로력으로써도 생산을 장성시킬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성흥 광산의 경험이 보여 준다.

지난 기간 성흥 광산에서의 계획 수행 정형을 분석한 데 의하면 계획을 초과 수행한 갱의 평균 기능 급수는 5.3 급인데 그렇지 못 한 갱은 4.5 급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력 구성에서도 성별, 년령 별, 체질에 맞게 응당한 균형을 보장하지 못 하였으며 그 결과 뒤떨어진 작업반의 기능공들은 다른 갱 성원들보다 더 많은 로동력을 투하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게 되였다. 또한 어떤 갱에서는 고급 기능공이 수행할 임무를 기능이 어린 로동자들에게 맡김으로써 많은 로력을 랑비하는 현상도 있었다.

보는 바와 같이 작업 대상의 구체적인 성격과 일'군들의 기능에 알맞게 로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일'군들의 생산 열의를 계발시키며 1 인당 생산액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는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문제이다.

로동 조직은 생산 조직의 중요 측면이며, 그것들은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공장, 기업소들이 기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작업 공정을 개선하고 필요한 자재, 부속품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에 적응하게 로력 조직 사업을 잘 결합시켜야 생산 조직의 실지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훌륭한 기술 력량이 있고 로력 조직이 잘 된 조건에서도 생산 공정이 합리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작업 조건이 보장되지 못 한다면 로동 시간의 최대한 리용에 대하여, 생산의 정상화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로동자들이 생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설비를 보수 정비해 주고,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 주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등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되여 있는 이 모든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룡등 탄광과 성흥 광산들에서는 굴진에서 계단식 방법을 도입하고 그에 적응하게 로동 조직도 어김식(4 조 4 교대제)으로 개편하였다. 이것은 발파 후 웃

충의 비력을 긁어 내리는 동안에는 천공 작업이 중단되고, 천공 작업을 하는 사이에는 적재 작업이 중단되였던 종전의 굴진 방법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굴진공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이리하여 발파, 천공, 적재 작업의 련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량은 무려 3배 이상으로 제고되였다.

이런 경험은 다른 부문에서도 리용될 수 있다.

오늘 당이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계 공장들과 공무 직장들에서 설비의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2교대제로 전환한다면 설비 리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기술 준비를 선행시키며 로동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기술 력량의 집중적 리용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 및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그것을 잘 결합시키는 것은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 거대한 예비를 동원케 한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생산 및 로동 조직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지대 앞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 가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찾아 내며 대중 속에서 일어 나고 있는 창의 창발성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이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김율갑

근로자 제9호 (루계 제223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5월 5일 인 쇄 • 1963년 5월 3일

ㄱ—330285 값 40 전

서적 안내

《인민들 속에서》(4)

4×6판 307 페지
발행 부수 100,000부
발행 기일 근간

회상 실기 《인민들 속에서》 (4)에는 해방 후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아 온 각 계층의 필자들이 경애하는 수령과 상봉하여, 그이의 교시 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소박하게 적은 21 편의 글이 실려 있다.

김 대홍의 《이 땅에 원쑤가 있는 한 무기를 놓을 수 없다》, 강 상호의 《산간 마을에서의 하루》, 한 병기의 《위대한 구상은 실현되고 있다》, 리 계산의 《어제'날의 농민이 오늘은 나라의 주인이 되였습니다》를 비롯한 회상 실기들은 위대한 혁명 사상과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 인민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 인민들에 대한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로 일관된 수상 동지의 공산주의적 품성과 높은 덕성을 진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됨.